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40 1983년 1월 2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January 26,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AN 26 1983

연말연시 교민상점 범죄피해많아

12월1일~1월25일 주택도난 합쳐 30여건 발생

메트로경찰 범죄보고에서 밝혀

한인 이민역사가 길어감에 따라 한인비지네스의 기반이 굳혀가면서 한가지 골치거리로 등장한 것이 범죄로 인한 피해이다.

본사가 메트로 경찰로부터 입수한 작년 12월부터 1월25일 현재까지의 메트로 교민들이 입은 피해는 총 30여건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1만달러를 넘는 가게 피해와 수천달러가 넘는 주택절도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중 가장 피해액수가 많은 경우는 지난 12월20일밤 상점 유리를 깨고 들어와 케이스채로 담배등 물품을 집어간 건으로 피해액은 총12,000달러였다.

이 기간중 범죄로 인한 한인의 인명피해도 1건 있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12월 25일 킹스톤·로드에 있는 L씨의 상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범인 2명이 캐쉬대 뒤에 있던 L씨의 두팔을 잡고 포켓을 뒤져 현금을 꺼낸뒤 발로 차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도주, L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기간중 심한날은 메트로 총범죄건수 한인들이 입은 피해가 약 반에 가까웠다. 지난 1월12일 이날 메트로 경찰에 보고된 총7건의 범죄사건중 3건의 피해자가 한인이었고 이중 2건이 상점강도, 1건이 주택침입 절도였다.

범인들은 대부분 흉기를 사용하기 보다 위협용으로 썼으며 흉기를 쓴 15건중 2건이 권총, 나머지는 칼을 쓴 경우였다. 범인들은 흉기를 가진 척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위협하거나 흉기를 가졌다는 메모쪽지만을 보이기도 한다.

실업인협회의 강공선사무장은 25일 "한인상점주들의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 실협에 보고된 건수는 1건도 없었다. 이는 상점을 팔때에 사고가 많은 상점이라는 인상을 안주고 싶은 때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글톤 토론토시장과의 면담에서 차선겸실협회장이 상점강도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가벼워 재범을 일으키므로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실협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메트로 경찰간부들과 협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택 절 도

주택절도는 부부가 몰다 일을 나가는 가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상점절도의 경우와는 달리 주택보험을 든 한인가정이 많지를 않아 범인이 잡히지 않는 피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선·라이프의 배용빈씨는 24일 집을 살때 모기지에 따라붙는 보험은 화재등으로 인해 집이 파손될때를 대비한 것이지 가구나 보석류는 따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안전하며, 크게 값비싼 가구가 아닌 한 1년에 200달러미만의 불입금으로 커버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택침입 도둑은 대부분 식구들의 출퇴근시간등 집안사정을 잘 아는 자로 대개 지하실 덧문을 부시고 들어간다.

그러므로 (1)평소에 되도록 현금을 집에 두지 않거나 부득이 두게 될 경우 분산시켜 두며, (2)아주 값비싼 귀중품은 은행등의 보관함(Safety Box)에 보관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상점강도 대책

상점에서 강도가 침입했을때는 저항하기보다 되도록 강도의 요구를 따라주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최상책이라고 메트로·경찰의 클레트경위가 24일 말했다. 그리고 침착하게 범인의 인상착의, 목소리등을 기억해 놓고 일단 범인이 사라진 뒤 즉각 411이나 각지역 메트로경찰 직통전화에 연락한뒤 경찰이 오기까지 남긴 지문등 흔적을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범인수사에 도움이 된다.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갔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 밤새 상점침입 절도등 비상시 경찰이 상점주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과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좋다.

석유가 인하시대 ?

제네바 OPEC비상회의 협상 결렬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상회의에서 가격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북해 석유가격이 배럴당 $31(미화)로 $2씩이나 떨어지는등 앞으로 전면적인 석유가격전쟁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석유가격의 급하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석유상이 이미 예견했던 것으로 24일밤 한 산유국의 석유상은 OPEC의 생산쿼타를 무시할 것이라고까지 말해 유류가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막·랄롱드 연방재무상은 유류가가 인하되면 캐나다인들은 난방비및 자동차 개스값을 절약케 될 것이며 전반적인 물가도 이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분석했다.

캐나다의 석유값은 OPEC가 설정하는 세계 석유가의 85%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만일 세계석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캐나다는 국가에너지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몬트리얼에 본부를 둔 레베스끄·보비엔 투자회사의 로버트·플렉스맨씨는 "캐나다의 에너지정책은 세계 석유값이 점차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계획된 것이므로 OPEC가 붕괴, 석유값이 하락되면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에너지가격은 연방정부와 알버타주정부가 지난 81년 9월 맺은 5개년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한국 해외여행 규제강화

초청장에 공관확인 필수적으로

토론토 총영사관이 25일 밝힌바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금년도부터 20인이상의 단체해외여행, 또는 부부동반여행등의 초청장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해당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시켰다.

이같은 조처는 종전에는 공증이나 공관확인중 한가지만으로도 충분했으나 앞으로는 변칙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여행을 억제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이번조치로 인하여 현재 공관확인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초청장은 종래에 실시된 ▲취업, ▲연예인의 공연초청, ▲3촌 이내가 아닌 친족·친지초청및 이번에 추가된 ▲20인이상 단체초청, ▲부부동시 여행초청등이다.

김포공항에 통관사무소 신설

(서울 25일=연합)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25일 재무부와 국세청의 금년도 행정업무계획을 청취한후 해외여행자가 귀국시 휴대하고 들어오는 과도한 품목에 일정한 과세를 붙이는 한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또하나의 통관사무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또한 금년 정부재정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둘것을 지시했다.

여행자유화 조치 인기없어

(서울 22일=연합)한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지난 4일부터 50세이상에 대해 최고 1개월까지 해외여행을 허용하였으나 외무부 보고에 따르면 22일 현재 불과 45명(부부2쌍 포함)만이 관광여권을 신청, 크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여권 신청자는 반드시 200만원(미화 $2,667)을 지정은행에 예치한후 귀국해서 다시 찾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무부관계자는 여행신청자가 이처럼 기대외로 적은 이유는 제정적인 부적당, 여행예치금의 의무화, 그리고 60세미만의 남자와 55세미만의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소양교육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관광성수기가 온다해도 신청자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직자 모집광고-토론토의 로마카톨릭관구는 성직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성직자모집광고를 냈다. 35개의 광고판을 거리에 세워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묘사한 극적인 장면과 함께 『감히 나와같이 사제의 길에』라고 호소하고 있다.

에어·캐나다 할인요금

2일만에 매진

에어·캐나다가 지난 20일 발표한 봄철 「시트·세일」 프로그램은 발표한지 2일만에 완전 매진, 봄방학을 이용해서 휴가를 즐기려던 많은 교민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다.

에어·캐나다는 토론토-뱅쿠버와 토론토-LA, 샌프란시스코 구간의 왕복요금을 $199, 토론토-뉴욕, 시카고간의 왕복요금을 $99로 특별 할인가격을 발표했었다.

에어·캐나다 예약과의 매리앙은 24일 "LA, 뱅쿠버 등은 이미 21일에 매진되었고 가까운 거리인 에드몬턴등도 일요일인 23일에는 완전 예약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트·세일"프로그램에 내놓은 좌석은 최소 1주일전 예약해야 하는 조건과 주말(토~일요일 오전)에만 여행해야 하는등 조건이 아주 까다로우며 좌석도 1대에 30~40석만 배정했다.

세방여행사의 유승민씨는 25일 "에어·캐나다의 이번 봄철 세일은 회사자체의 선전을 노린것에 불과하며 실제소비자에는 혜택의 기회가 크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社 告

제2회 스키강습회

가족과 함께
스키를 즐깁시다

스키강습자 집합

몽·트랑브랑 스키장에 가시는 스키 강습회 회원들은 오는 28일(금) 하오5시30분까지 브랜든·스포츠사(337 Bloor St. W., St. George와 Huron St.사이)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대절버스가 6시정각에 출발합니다.
강습회 참가 희망자는 좌석이 4석이 남았으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처: 533-2361, 598-3732

한인스키협회
토론토한국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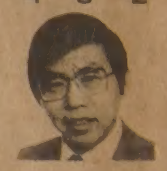
은하 보석
란제리 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7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후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5%		8%
90일	10%		8.5%
180일	10%	9.75%	8.5%
365일	10%	9.7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배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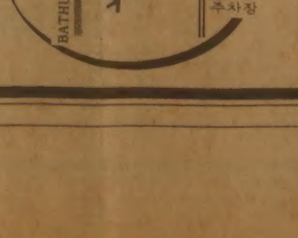
기독교회관 요한화랑

Grand Opening 인사드립니다.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이민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은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 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라며 우선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대신합니다.

1983년 1월 이 준 관 올림

ㅁ성화 ㅁ초상화 ㅁ기독교서적 ㅁ성가테이프
ㅁ각종 선물용상품 ㅁ다양한 디자인의 액자



549 BLOOR ST. W.

☎ : 532-7909(B) 749-7493(R)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극단 "얼" 창립기념 공연

3월19,20일로 확정

오영진작〈맹진사댁 경사〉…입장권은 $10

극단 "얼"(대표 이장성)의 토론토, 런던, 몬트리얼 공연 날자와 출연진·스탭진이 확정됐다.

토론토에서는 배더스트와 블루어 남쪽의 센추랄·테크니칼·스쿨(725 Bathurst St.)에서 3월19일(토) 하오8시와 20일(일) 하오3시및 8시에 각각 모두 3회 공연하며 입장권은 $10이다.

런던공연은 그 다음 주말인 3월26일(토), 몬트리얼 공연은 4월2일(토)에 각각 있게 되며 이들 지역의 공연장소및 각지 입장권예매처는 추후 발표된다.

창단기념공연작인 오영진작 〈맹진사댁 경사〉의 연기진과 스탭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기진

맹진사(태랑): 이광민
맹노인(그의 아버지): 신익균
맹효원(그의 숙부): 손경일
한씨(그의 아내): 이정원
갑분(그의 딸): 박지연
참봉: 호세환
유모: 유석란
입분: 강종희
삼돌: 서동헌
길보: 박성민
김명정: 김상옥
김미언(신랑): 김현규
마을처녀 갑: 김혜원
마을처녀 을: 김초은
근친 갑: 정철주
근친 을: 정태주

★스 탭

연출: 이장성
기획·홍보: 임중남
기술감독: 장기철
무대장치: 장연탁
무대감독: 정광호
조명: 이계민
의상: 김초은
분장: 이정원
재정: 호세환
음향: 김미영
소도구: 유석란
섭외: 서동헌
하우스매니저: 진용섭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할렐루야 83년도 부흥성회』

토론토 한인장로연합회 주최…강사 김중기 목사

토론토의 한인장로연합회(회장 구연원)는 2월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4일간 「할렐루야 83년도 대부흥성회」(대회장 전택균)를 연다.

「생동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임의 강사는 82년도 북미주교역자 연합수련회 강사였으며, 연세대 신학대학교수로 재직중인 김중기 목사(박사)이다.

이번 부흥회 일정은 2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매일 하오7시30분 펜테코스탈교회(300 Queen's Dr, Tor.)에서, 20일(일)은 하오7시30분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Tor.)에서 각각 성인집회로 열린다.

한편 19일(토) 하오2시 청소년을 위한 특별집회가 새한장로교회(105 Wilson Ave, West, Tor.)에서 열린다. 학생지도에 뛰어난 김목사의 신앙지도 모임에 각교회 청소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연세대및 동대학원 출신으로 하바드대학, 보스톤대학 신학대학원, 매코믹신학대학원, 노스웨스턴대학원을 마친 김목사는 보스톤한인교회, 미드웨스트장로교회, 호노룰루기독교회에서 다년간 목회했으며, 미연합장로교회 소속 목사로서 선교사로 한국파견중 모교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목사의 작년도 순방지도경력은 미주한인교역자연합회, 워싱턴 교역자수련회및 워싱턴부흥회 강사로 성황을 이루었다.

김목사는 토론토의 대부흥회가 끝나는대로 2월24일부터는 뉴욕(뉴욕 교역자연합회 주최)에서 할렐루야 '83년 연합부흥성회를 가지며, 또한 LA(동양선교교회)서도 같은 집회를 가진다. 이번 김목사의 북미주순회는 토론토 한인장로연합회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복으로 단장한 극단 "얼"단원들.(연습장인 삼우스튜디오에서)

보스톤 성령세미나

토론토서 38명 참가

토론토한인천주교회의 최규식 주임신부와 신자 38명은 24일(월)~28일(금) 4박5일간 보스톤한인천주교회(주임 곽길우 신부)에서 실시되는 북미주 한인가톨릭 연합성령세미나에 참가중이다.

지난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4박5일간 신시내티한인천주교회(주임 왕영수 신부)주최로 메이톤시의 묵상의 집에서 실시된 동 합동성령세미나에는 토론토성당 이석현 총회장을 비롯 5명의 신자가 참가, 현대를 사는 신앙인의 정신자세및 신앙부흥 수련을 하였다.(강사신부 7명)

영국인 가정부 추방될지도

취업허가 갱신 하루 늦어

덕슨·로드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가정부 마가렛·피터슨(29세)씨는 임시고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루 늦게 했다는 이유로 6개월된 아기와 함께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1980년 10월에 토론토에 온 이 여인은 현재의 약혼자인 마리오·스카리오네씨의 집 가정부로 고용되어 일해 왔으며 고용만료기간은 81년 10월까지였다. 그녀는 만기일이 되기 전인 81년 7월 체류연장을 신청하였고 7월29일에 1년간의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만1년이 되는 날자를 7월28일 대신 7월29일로 오산한 그녀는 하루의 오차로 재연장신청의 기회를 놓쳤다. 그녀는 7월에 이민·고용성에 찾아가 스카리오네씨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으나 약혼자가 실직을 당했으며 아직 부채가 남아있어 결혼식은 연장해야겠다고 말하자 그녀의 사정상 체채연장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는것.

그렇지만 캐나다·이민센터의 토론토 집행사무소는 그녀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특별취급해주지 않았다.

◆마가렛·피터슨 여인

지난해 11월 이 여인은 토론토 집행사무소로부터 이문제를 다루기 위해 2월14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추방을 당하던지 아니면 출국명령서를 받을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기일을 하루어겼다고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 문제에 대해 로져·와이트 이민국 공보담당관은 "하루를 늦거나 한달을 늦건간에 법에 의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가 늦어질 경우 자동적으로 그 다음단계가 조치된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이미 카나다 밖에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대 동창주소록

토론토지구 이화여대동창회(회장 이주연)는 〈83년도 이화여대동창 주소록〉을 소책자로 펴냈다.

토론토 거주 은사 3명을 비롯, 각 단과대학별로 분류, 총 186명이 수록되어 있다.

제5계절 — 일하는 기쁨

조 남 유(대한교회 목사)

◆조남유 목사

우리가 일할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기쁨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요즈음 일터가 없어 말못하는 교포들의 아픔에 상당한 관심이 간다. 수년간 일하던 우리들 주위의 젊은이들이 일터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대하게 될때 점점 어려워지는 삶의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있다.

지난 연초 캐나다 카톨릭주교회의 사회문제위원회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이나라의 심각한 경제문제가 부도덕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발표하여 큰 파문을 주었다. 저명한 8명의 주교들은 오늘의 경제적현실은 그 엄청난 실업자의 증가로 큰 사회악을 조성하고 있다고 정부와 기업가, 고용주들을 매도했다. 가진자의 욕망보다는 없는 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일할 권한을 더 중시해야 하며, 소외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성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전 미디어에 찬반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중 어느 논설자는 아주 묘하게 꼬집는 글을 썼다. 이 심각한 경제파탄의 비극성을 고발하기 전에 그들 주교들이 소속한 가톨릭교회가 그 소유하고 있는 세계 각처의 재산과 막대한 재력을 우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면세로 얻어지는 이익을 실업자를 위한 직업창출프로그램에 투자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 성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성서 복음서의 예수의 비유중에, 주인이 먼곳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맡긴다. 그들중 부지런한 종들은 재물을 투자하여 열심으로 일하여 그 갑절로 만들고, 주인의 인간성을 너무도 잘아는 종은 받은 재물을 축내지 않고 땅속에 묻어 두었다. 주인이 돌아왔을때, 갑절로 만든 종들은 착하고 진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듣게 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하는 내용이다. 예수당시의 주인들은 그래도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현대의 주인들인 기업가, 고용주들은 아예 일할수 있는 기회까지도 앗아가 버리는게 아닐까? 과연 우리 세대에 예수가 함께 있다면 그 분은 무슨 말씀을 남겨주실 것인가 상상해 본다.

얼마전에 내 교회의 젊은 부부가 한꺼번에 레이오프(임시 해고)를 당해서 당황하는 것을 대했을때 무슨 말로 위로할지 매우 망설여졌다.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그들에게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주교님들의 관점보다는 보다 피부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아픔이고, 또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일것이다.

점차 치솟던 은행이자가 내리고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교포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 분들이 당하는 아픔을 기억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마음들이 아쉽다. 또한 무사히 일터에서 일할수 있는 분들은 그 기쁨을 다시 음미하며 감사의 생활로 밝은 기쁨을 확인해 봄이 얼마나 기꺼운 일이겠는가?

알라스카 석탄 수입

한전, 15년간 연 80만톤

(뉴욕 21일=연합)월·스트릿·저널지는 21일 한국전력공사와 알라스카 선일(Suneel)회사가 5년간의 협상끝에 년 80만 메트릭톤(메트릭톤은 2,204파운드)의 석탄공급 1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채탄장은 훼어·뱅크 근방에 있는 죠·어시벨리 탄광이 될 것이고 선적은 앙카라지 부근의 스워드 항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탄을 위한 갱도설비의 시공은 금년 봄안에 시작될 것이고 채탄은 늦어도 1년안에 시작된다.

어쉬벨리 탄광은 약 60년간 가동된 탄광으로 주로 국내수요용을 공급했었다.

부산대 동창회

30일 신년파티

부산대학교 동창회(회장 조지섭) 신년파티가 30일(일) 오후6시 동창 김종호씨댁(175 Old Surrey Lane)에서 열린다.

연락처는 731-0460(김종호), 530-0522(조지섭)

파티장소는 하이웨이 7과 영·스트릿 북서쪽이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박종수밍크농장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권도의 박종수가
야심을 갖고
시중 기성 밍크코트 반값으로
여러분 앞에
박종수 밍크농장의
밍크 코트를 선 보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많이
애용해 주십시요.

대표 박 종 수 드림

박종수 밍크농장 특 징

□ 공장가격보다 더 싼 농장가격
□ CUSTOM MADE; 당신의 몸에 꼭 맞게 칫수를 재어서 맞춰 드립니다. (전화만 해 주시면 됩니다.)
□ 최신 유행의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 할 수 있읍니다.

연락처
961-7100▸2 모니카 또는 Mr. 박

비디오·게임 판로경쟁 치열

홈·컴퓨터 보급으로 기존시장 침식

캐나다의 비디오·게임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기존시장이 홈·콤퓨터에 의해 침해당하기 시작하자 대폭적인 시장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 덕분에 소비자들은 금년에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좋은 비디오·게임을 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대신에 공급자들은 그만큼 이윤폭이 줄어들게 됐다.

심슨스·시어스(Simpsons-Sears Ltd.)사의 테이즈상품 판매책임자인 게리·캘러한씨는 "홈·콤퓨터가 아직은 비디오·게임보다 다양한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곧 기술적으로 보완될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모들은 홈·콤퓨터를 자녀들의 장난감으로서는 물론, 교육기재로서 보기 때문에 앞으로 홈·콤퓨터의 판매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년도에 홈·콤퓨터의 판매량이 2배내지 3배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Bay)백화점의 판매촉진이사인 베티·애그뉴씨는 홈·콤퓨터의 등장으로 비디오·게임의 판매가 금년에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디오·게임의 공급자들은 대부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들은 비디오·게임의 판매량이 장차는 줄겠지만 금년에는 줄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인텔리비견·게임(Intellivision Game)의 공급회사인 토론토의 마텔·캐나다사(Mattel Canada Inc.)의 레오나드·크롬트사장은 금년도 비디오·게임과 부속 카트리지의 매상이 지난해의 판매추정액 2억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롬트사장은 이어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TV를 소유한 가정의 7%에 해당하는 487,000대의 비디오·게임이 팔렸으며 이중 24만대는 지난해에 팔렸다고 전하면서 금년에는 40만대가 팔릴것으로 전망했다.

크롬트사장은 또한 "TV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은 15%내지 20%까지 침투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중 상당수의 가정은 시기가 좀 걸리겠지만 비디오·게임보다 복잡한 홈·콤퓨터를 원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마텔사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1월6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소비자전자쇼에서 인텔리비견·유니트에 콤퓨터의 프로그램기능을 가미한 플러그·인(Plug-in)키보드를 선보였다. 어쾌리어스(Aquarius)라고 불리우는 이 홈·콤퓨터는 캐나다에서는 8월부터 선보이게 될것같다.

캐나다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또하나의 회사인 샌프란시스코의 아타리사(Atari Inc.)도 라스·베가스 전자쇼에서 이 회사의 3번째 제품이자 최대 홈·콤퓨터 모델인 아타리1200을 내놓았다.

아타리의 캐나다공급회사인 토론토의 어윈 장난감회사(Irwin Toy Ltd.)의 수석제품 매네저인 폴·그리피스씨는 "비디오게임이 콤퓨터조작이기 때문에 복미에서는 콤퓨터시대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피스씨는 비디오·게임의 캐나다의 8백만가정의 침투율은 현재 5%정도지만 금년내로 11%까지 증가될것이며 35%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여간 비디오·게임과 홈·콤퓨터 제작회사의 경쟁이 심하게 될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접하게 될것같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이상한 女人

<156>

金聖鍾 작

다시 무대바뀌어 朴文子집에 電話가…

①

때르르릉 때르르릉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었다. 문자는 불길한 예감에 얼른 수화기를 들지 못하고 전화통만 바라본다. 전화통이 몸부림치며 울어댄다.

세번더 울린 뒤에야 그녀는 수화기를 가만히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예, 누구 찾으시나요?』

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기 한기수씨 댁이죠?』

『네, 그런데요.』

『저기…박문자씨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만…누구신가요?』

처음 듣는 목소리라 그녀는 잔뜩 경계했다.

『그렇군요. 당신이 바로 박문자 여사이군요.』

조소하는듯한 목소리가 귀를 후비고 들어왔다.

『누구신가요?』

『……』

대답대신 이번에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예요?』

문자는 다급해서 물었다.

『끊지도 마.』

웃음소리가 그치면서 대뜸 반말이 튀어나왔다. 문자는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朴男 그림

『뭐라고? 당신 누군데 반말하는 거야?』

그녀도 지지 않고 반말로 물었다.

『흥-, 누구냐고? 내가 누군지알면 기겁하고 놀랄걸.』

『뭐가 어째? 당신 도대체 뭐하는여자야? 용건이뭐야? 말해봐!』

『대단하시군. 박문자여사, 아직껏 확이 찾아오지 않은모양이지?』

『뭐, 뭐라구?!』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흥, 이제 놀라시는군. 알겠어? 내가 누군지?』

『당신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잘못 알고 전화 건 모양인데, 전화 똑똑히 걸어!』

그녀는 수화기를 탁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걷잡을수없이 뛰고 있었다. 큰일났다! 어쩌면 일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다시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통을 노려보다가 수화기를 움켜쥐었다.

『박문자 여사,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잘들어. 당신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알았어?』

『도대체…도대체…왜 이러는 거야? 당신 누구야? 당신누구야?』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프랑스자본으로 새 영화 〈亂〉착수

깐느영화제 수상감독 구로자와씨

영화 〈라쇼몽羅生門〉으로 세계적 대감독으로 발돋움한 일본 은막계의 거장 구로자와 아키라감독(72)이 프랑스 영화계의 자금으로 새로운 영화 〈乱(반란: Rebellion)〉을 감독한다.

오는 14일 촬영에 들어가 12월에나 완성될 이 영화의 원작은 쉐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의 주제를 따 무대를 16세기 일본으로 번안시킨 작품.

작품〈가게무샤(Shadow Warrior)〉로 80년도 깐느영화제 골든·팜상을 탄 구로자와감독은 새 영화 〈乱〉에 대한 구상은 수년전부터 해왔으며 비록 리어왕에서 부분적으로 따오긴 했지만 상당부분이 독창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영화계의 거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키라·구로자와 감독(72세)

일본 영화를 세계무대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공헌한 구로자와감독은 이 영화에서 세 아들(리어왕의 세 딸들 대신)파의 갈등과정에서 몰락하는 영주역에 가게무샤의 스타 다쯔야·나까다이를 기용했다. 제작회사 역시 가게무샤로 1,22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토호영화회사가 맡았다.

완벽주의자로 제작비를 많이 들이기로 유명한 구로자와감독이 이번 영화의 제작비를 일본 국내에서 충당치 못한 반면 프랑스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음은 그의 감독으로서의 권위를 입증해준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HOGAN GM
Chev Olds Limited
시보레·올스모빌

□최저 다운 페이먼트
□저렴한 가격 보장
□가장 좋은 조건으로 Finance 가능

O새차, 중고차, 트럭등 Leasing
O Trade-in

마이클 손
5000 Sheppard Ave. E., Scarborough, Ont. M1S 4L9 291-5054
(세파트×맥퀸)

격월간 신앙지 개혁자 창간호
발간 토론토개혁장로교회

…도도한 배교의 물결이 전세계 교회들을 휩쓸고 있고 인간의 교회와 사탄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자태를 흐리고 이즈러뜨려 놓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과 인간중교적 감흥에 술 취하듯 취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처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복음신앙을 견지하고 전파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교회들 뒤에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궤계를 폭로하는데 이 「개혁자」지가 중요히 쓰여질 것이다….

(개혁자 창간사, "개혁자의 자세"에서)

주요내용 : 예수그리스도 우리주님(강선), 개혁신앙의 기본강령들, 신앙의 기본도리(강해), 교회의 연합운동-교회의 배교와 타락, 범람하는 성서번역판들-그 실상과 문제점, 인간중교와 성령운동-그 허위와 기만성, 로마교회-얼마나 비성경적인가?

가 격 : 무료

구독방법 : (전화)492-9889, 498-0241
(서신) Toronto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P.O. Box 2603, Station "F" Agincourt, Ont., CANADA

동우회원들께

친애하는 동우회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강황규동우께서 1년여의 긴 세월동안 현대의 의술을 총동원하여 투병을 하였으나 병세는 점점 악화일로… 거주지인 BARRIE에서 지난 1월20일 이곳 토론토 GRACE 병원(650 CHURCH ST. at BLOOR ST.)으로 옮겨 왔읍니다.

동우회원 여러분! 20여년전에 맺어진 형제애와 동지애로써 문병하여 강동우께서 투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문병시 일체의 음식물은 지참치 마시고 회원들께서 소속한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본인이 원하고 있음.)

동우회

Caeser's Discount Market

□일반인들에게 직접 OPEN됐읍니다.

O공장제품, 수입품 또는 도매물품
O렌트할 작은 장소 있음.
☎ 288-1800
(오전10시~오후5시)

1921 Eglinton Ave. E.
(at Warden)

*영업시간 : 화, 수요일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요일 : 오전10시~오후9시
일요일 : 오전10시~오후5시

※월요일은 Close함.

「藝術의 殿堂」 짓는다

서울瑞草洞 前시청敷地에 88올림픽文化施設로 활용

東洋굴지 규모로 관계部處 협의중

정부는 국내예술활동의 총본산이 될 동양굴지의「藝術의 殿堂」(가칭)을 서울江南區 瑞草洞967 당초서울시청부지에 짓기로하고 관계부처끼리 협의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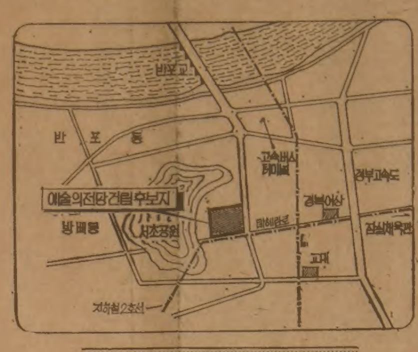
예술의 전당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예술의 종합전시관 기능을 하게될것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대행에서얻은 수수료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당국은 藝術의 殿堂이 파리의「퐁피두센터」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국적인특성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마스터플랜을 마련중에 있다.

瑞草洞시청부지는 모두 3만2천여평으로 江東지역 올림픽타운에서 ①자동차로 10~15분 거리밖에되지 않으며 ②바로반포대교—3호터널등을 거쳐서 江北 문화축으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해있고 ③문화올림픽시설로 적합하고 ④지하철이 들어오는등 교통이 편리한데다 시청의 강남이전계획이 완전백지화됨에 따라 예술의 전당부지로 거론되게 된 것이다.

예술의 전당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등 국내(문화)예술창달을 위해 각종문화, 학술회의와 전시회, 발표회, 공연무대의 장소를 제공, 앞으로 문화중심체 구실을 하게된다.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구경한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올림픽도 손쉽게 참관할수있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잠실종합체육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있는 당초 瑞草洞 시청예정지를 예술의 전당부지로 계획하게 된 것이다.



"北韓의 迂廻침투 봉쇄해야"

全대통령 학원·勞組등 대상 激化예상

對間諜대책會議서 強調

◇全斗煥 대통령이 對間諜대책중앙회의에서 우수부대를 표창하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21일『北韓공산집단이 금년에는 地下조직건을 노리면서 학원과 勞組, 종교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회침투공작을 격화시킬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지적, 『따라서 우리는 北韓공산집단의 간교한 戰術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민모두가 단합해 사회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國力培養을 經濟태세를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중앙청에서열린 對間諜대책중앙회의에참석, 諭示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北韓의 침략주의자들은 상황변화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허점만보이면 전면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할 준비를완료해놓고있으며, 지금 이시각에도 우리의내부교란을위한 각종 침투공작에혈안이돼였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의 방위태세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아직도 미비한점이없지않다』고 지적하면서 ▲北韓공산집단의 간첩침투와 기습에 철저한대비▲국가중요시설 防護체제공고화▲주민신고의식제고등에 더욱 힘써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北韓공산집단은 그들내부의 여러가지어려운 상황과 날이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는 南北韓간의國力격차에 초조한나머지 금년에는 과거 1·21사건과 三陟·蔚珍무장공비침투사건보다 더 악랄하고 과격한 도발을 감행할우려도 없지않다』고 말하고『따라서 국민모두가 이에대해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優秀예비군등 표창

정부는 21일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올해 첫 對間諜대책중앙회의를 열고 당면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2년도우수예비군부대및 단체에 대한 대통령표창도 있었는데 표창부대및 단체는 다음과같다.

◇예비군부대▲전북鎭安郡朱川面隊▲경기平澤郡서부출장소중대▲강원東草市校洞중대▲東洋고무대대▲三星통합연대

◇防衛協議會▲전남高興郡▲경기安養市▲강원江陵市▲경남密陽郡▲전북金堤郡

◇국가基幹산업▲韓電▲浦鐵 ◇기타 1개 戰警대대

全대통령과 電話통화 訪美결과 상세히說明

나까소네首相

全斗煥대통령은 21일 하오 6시 靑瓦臺에서 美國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나까소네(中曾根)日本수상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訪美결과에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全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 전화통화는 나까소네수상 취임후 이번이 세번째이다.

蘇核위성 23~25일사이 추락

美國防省 밝혀

정확한地點 현재론 豫測못해

蘇領內떨어질가능성은 15%

【워싱턴AP·聯合】전세계에 核공포를 불러일으키고있는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가 오는 23일 하오3시에서 25일상오 5시(韓國시간)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것이라고 美국방성이 20일 밝혔다.

美국방소식통들은 50kg의 농축우란늄을갖고있는 코스모스1402호의 원자로가 정확하게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 추락할는지 현재로서는 예측할수없으며 또 이첩보위성의 정확한 하강진로도 파악할수없는 상태이라고 말했다.

헨리·캐토국방성 대변인은 코스모스1402호가 일단지구위 1백60km지점의 대기권에 돌입하게되면 지상에 도달하는데는 불과 30분밖에 걸리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美관리들은 코스모스1402호가 바다에 추락할가능성은 70%이며 소련영내에떨어질가능성은 15%이고 캐나다와 美國에 낙하할가능성은 각각 3%와 2%라고추정했다.

大使5명에 신임장

全斗煥대통령은 21일상오 중앙청에서 崔侊洙駐사우디아라비아, 尹億燮駐가봉, 安煥哲駐가나, 李鉉弘駐리베리아, 金得寶駐이디오피아대사등 5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주었다.

◇泰방문 李外務 타이를 방문중인 李範錫외무장관이 방문 이틀째인 21일 정부청사로 프렘·틴술라논타이수상을 예방하고 악수를 하고있는모습.【방콕21日UPI聯合】

"解禁인사政治활동 舊態되풀이없어야"

李民正총무

【大邱=盧鍾煥기자】李鍾贊 民正黨총무는 21일『앞으로 解禁될 사람들이 다시정치를 하겠다고해도 舊시대와 같은 정치行態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民正黨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총무는 이날 하오 大邱 東·北區지구당(위원장 金瑢泰의원) 개편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말하고『野黨은 제5공화국에 참여한 자기위치를 철저히 계속 지키며 解禁될사람들을 흡수해야지 그들에게 끌려다녀서는 舊시대정치가 재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경고했다.

民正 "解禁인사 迎入"

權총장 政治질서 파괴않는 범위서

【康津】民正黨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치규제에서 解禁되는 人士들중 제5공화국 이념에 동조하는인사들을 迎入할 방침이다.

權翊鉉 民正黨 사무총장은 21일상오 全南康津·靈岩지구당개편대회 참석에앞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民正黨은 모든사람들에게 참여의길을 열어놓고있으며 정치規制자가운데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제5공화국의 이념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일부解禁대상자의 迎入의사가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解禁조치가 실시된다고해서 새로 형성되고있는 정치질서의 근본을 뒤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전제,『새로운 정치질서는 대화와 화합을 지향하고있는만큼 解禁조치가 화합에 해가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며 解禁은 제5공화국에 同參하고 기존정치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權총장은 이어 최근의 정치풍토에 대해『정치일각에서는 정치안정과 발전을 저해할우려가있는 人氣迎合, 善心행위등 舊態依然한 사례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고 지적한후『인기에 영합하고 선심을 쓰지않고서는 선거에 당선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용기가없다는것을 自認하는 인사이며 이런정치군은 이제 우리의 政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정치꾼은 국민의 선택에의해 자연도태되어 政界에서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하고『새로운 정치풍토의 구현은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조성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조성하는 것인만큼 국민의식의개혁과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力說했다.

權총장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대해『헌법정신에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것이 民正黨의 기본입장이지만 행정구역의 합리성여부등 地自制실시를위한 先行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말했다.

해설

새政局構圖에 變數작용

野圈엔 큰損失요인될듯

解禁될 일부정치被규제자의 迎入을 밝힌 權翊鉉民正黨사무총장의 '공식언명'은 앞으로 各黨이 全黨대회를 계기로 再編될 새로운 政界構圖에 상당한변화와 영향을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전국各지구당 改編대회에 격려차 참석중인 李鍾贊총무등 黨간부들이 일제히 解禁관계 발언을한것은 民正黨으로서도 이 문제는 사뭇 중요하게 다루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물론 迎入의 대상과 폭이『제5공화국과 民正黨의 창당이념에 긍정적인 人士』로 한정되어 있고『解禁은 기존정치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는 民正黨의 但書가 붙어있지만 他黨과는달리 民正黨이 과거정치에대해 책임을 물어 묶었던 일부 舊정치인을 受容하겠다는 것은 어떤의미에서 중대한 政治의 進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民正黨이 일부 舊정치인들을 受容한다고 해서 民正黨이 體質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改革의 이념이 퇴색할 전망은 전혀없다.

현재 民正黨에는 적지않은 숫자의 舊정치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새정치풍토를 지향하는 民正黨의 이념에 同化되어 과거의 색깔을 찾을수없고 黨內에서 뚜렷한 위치를 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영입될 舊정치인도 스스로 體質변화를 일으켜 同化될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당은 民韓黨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각오해야할 것 같다. 이는 새시대同參의식을 갖고있는 인사들을 영입하겠다고 밝힌 民正黨의 뜻이 대체로 新與黨인사들을겨냥한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도 解禁人士의 적극영입'만 표시했을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못하고 있는 野黨은 앞으로 있을 民正黨의 영입내용에 따라 門戶개방의 폭을 달리해야하며 그만큼 政界再編의 내용도 달라질것으로보인다.【李以雪기자】

駐韓美軍 계속駐屯 재확인

레이건, 東北亞서 韓·美·日협력 強化

【워싱턴=李文熙특파원】미국은 일본이 1천마일 해로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방위력을 기르기로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같은 환영의 뜻을 20일 레이건美대통령의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된 레이건 행정부 2년의 업무평가서에서 밝혔다.

미국은또한 일본과 국방, 무역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평가서는 지적하고 미국이 일본에 최신형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렇게함으로써 東北아시아에서의 점증하는 소련군사력에대한 대비태세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경제懸案 논의

盧次官-워커大使

盧載源외무차관은 20일 리처드·워커 駐韓미국대사의예방을 받고 40분간요담했다. 워커대사는 최근 政務협의차 일시귀국했다가 이날귀임인사차 외무부에들렀는데 盧차관과의 요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현안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亞·太閣僚이사회 사무총장 鄭度淳씨

아시아·太平洋閣僚이사회(ASPAC)는 신임 사무총장으로 鄭度淳 前駐스위스대사를 임명했다. 81년말 임기만료된 洪聖郁 前총장의 후임으로 21일 ASPAC사회문화센터 집행위 임시회의에서 선서식을 가진 신임 鄭총장은 駐뉴욕및 샌프란시스코총영사와 駐케나다및 스위스대사를 역임한 직업외교관출신이다.

社會漫評

준비 한창?!…

地平線

카메라를 처음 장만하게되면 누구든지 우선 무얼 찍어보나 생각하게된다。어렵게 궁리할 필요는 없을것이다。사진은 쉽게 찍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제일먼저 가족들부터 찍는편이 좋을듯 하다。화창한 봄날씨에 가족과함께 야외로 소풍나가 재롱떠는 어린딸·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두면 훗날 소중한 성장의기록이 될것이다。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카메라를 처음 만져보는 보통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흔한 상식일게다。▼세계적인 사진작가 알프레드·아이젠슈타트는 1945년 8월15일 일본항복뉴스를듣고 거리로 뛰쳐나온인파들로 붐비며 뉴욕市의 타임즈 스퀘어 광장으로 갔다。전쟁이 끝난 기쁨을 렌즈에 담기 위해서다。그는 그 타임즈 스퀘어 거리 한복판에서 한 해군수병이 간호원의 허리를 껴안고 정열적으로 키스를 퍼붓는 장면을 운좋게 잡을수 있었다。수병의 네이비·블루빛깔의 제복과 간호원의 백의가 잘 조화를 이루었다。정열적인 그 키스장면을 가득한 기쁨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의 밝은 표정 또한 좋은 배경이 되었다。▼아이젠슈타트의 이 한장의 사진은 라이프誌에 게재돼 전쟁의 終熄을 가장 실감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꼽혔었다。그리고 그의 명성은 일약 세계로 번졌다。그 사진속의 白衣의 천사는 그후 출퇴 신분을 감추어 오다가 終戰35주년이 되던해 마침내 아이젠슈타트에 편지를 띄워『사진속의 간호원은 자신』이라고 밝혔다。『이젠 60이 넘은 할머니로서 신분을 밝혀도 좋을때가 됐다고 판단되어 나서게 된것』이라는 사연과함께『그 귀중한 사진을 간직하고 싶다』는 소원을 아이젠슈타트씨에 전했던 것이다。잊혀질수 없는 평생의 추억—이를 두고 간직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本性일 것이다。▼사진예술이란 말이 흔히 오르내린다。사진작가의 심오한 內的 충동성과 이미지를 사진을통해 표현한 예술분야를 이르는 말일 것이다。한데 오늘날의 사진예술은 카메라의 성능과 그현상및 인화과정의 진보에 따라 역설적으로 그예술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다。카메라작동의 自動化현상이 극도로 발달되어 初心者라도 간단히 훌륭한 사진을 쉽게 찍을수 있기 때문이다。하나 반면 그럴수록 사진작가의 內的이미지의 獨自性, 다원한 현실관찰, 건전한 사회비판정신은 더 깊이있게 발양돼야 할것이다。▼한 중년사진작가가 누드를 찍는다면서 變態行爲를 했다는 사건은 그런 예술성을 너무나 끔찍스럽게 배반한것이다。그무슨『사진작가』라하기엔 심성의 수준과 교양도부터『실격자』라 하지않을수 없겠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초대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새해의 첫발을 내딛고 있읍니다. 생각하면 지난해는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단결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극복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읍니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으면서 협회에서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회와의 결속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신년파티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해 올립니다. 단결의 척도는 참여도입니다. 어려우신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회원 전원이 부부동반하셔서 하루를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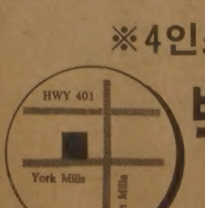
이날은 정기총회및 사업보고도 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때/1983년 1월29일(토) 오후6시30분 호텔뒷편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곳/PRINCE HOTEL CROWN ROOM 900 YORK MILLS RD. (at Don Mills Rd.)

□ 회비/부부 50불(1인당 25불) ▲연락처: 임윤배(755-1746)

※4인조 악단및 많은 경품이 준비되었읍니다.



벡커 프랜차이즈협회
회장 김 병 진

꺼지지않는 戰爭불씨
포클랜드 超緊張

아르헨 발버둥… 再侵說의 背景은…

포클랜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재침공설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은 20일 美CBS방송이 아르헨티나軍의 對포클랜드 공격준비설을 보도한지 하룻만에 포클랜드주둔 영국군이 경계태세에 돌입했음을 의회에서 밝혀 再侵說을 공식화했다.

CBS방송은 19일 아르헨티나가 잠수함을 동원, 포클랜드에 대한 특공대작전을 계획하며 그 목표는 영국군의 레이다시설및 통신시설, 대공포진지등이될 것이라고 정보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또 작년 영국과의 전쟁에서패배한후 그동안 잃어버린 전투기를 보충해왔고 전투기들에 외부연료탱크를 부착, 작전반경을 늘려왔다고 말하는 소식통도있다.

軍費염출위한 造作劇 아르헨
實利없어 守備에 고심 英國
전문가들 "英의 宣傳戰 가능성짙다"

포클랜드 재침공설은 작년 6월 15일 전쟁을 끝낸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이 아직 「적대행위종식협정」체결에 합의를 못본 상태여서 일단 그렇듯하게 들리고 있다. 말하자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침공군이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뿐 엄밀하게는 양국사이의 전쟁상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그대로 살아있었다.

포클랜드 전쟁후에도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가 자국의 영토라는 목소리를 낮추지않았으며 몇세대가 걸릴지모르나 이를되찾겠다는 결의를밝혀왔다.

CBS방송은 또 아르헨티나가 남북공격로를 확보키위해 남극대륙에 군사기지를건설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의 이같은 군사활동증가와 이에맞서 영국군이 경계태세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낙관을 불허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측은 포클랜드에 대한 재침공설이영국측에의해 고의로 조작되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DYN통신은『그같은 보도는 근거없는 것으로 영국이 말비나스(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 이름)에 주둔중인 4천명의 영국군 배치를 정당화하기위해 고의로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전문가들도 포클랜드주둔 영국군에대한 아르헨티나군의 공격 가능성은 관심을 가질만한일이 못된다고 말하고있다.

영국은 포클랜드에 4천여명의 정예육군과 12대의 팬텀전폭기를 배치,수비에 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영국관리들은 이 정도 병력으로는 아르헨티나군이 펼칠지 모를 소규모 산발적 공격을 저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고있다. 주력부대가 철수한후의 포클랜드 전역을 이 정도의병력으로는 물샐틈없이 방비키에는부족하다는 말이다.

영국은 사실 본토에서 1만3천km나 떨어진 포클랜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비할수 있느냐에대해 고심해왔다.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는데도 연간5~8억달러가 소요된다.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포클랜드전역을 수비요새화하는데는 더욱 많은 경비의 염출이 절실한 마당이다.

더 많은 경비염출에는 영국조야의 시끄러운 논란이 뒤따를 것이 틀림없다.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재침공설을 영국이 조작해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에있다. 즉 경비염출을 위한 사전공작이라는 것이다.

포클랜드전투에서 승리, 잠깐 축제무드에 휩싸였던 영국은 얼마안가 포클랜드사태를 무력대결사태로까지 방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대처를 정치재판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포클랜드 전쟁이 18억달러의 戰費를 투입,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켜 놓았을뿐 손에쥔實利가 없었던데서 기인했다.

영국이 얻은것이라곤 老帝國의 영광, 그것도 상처투성이의 영광이었다. 兩國의 反英감정은 색슨감정을 고조시켰고 이들은 소련과 쿠바에 傾斜케 만들었으며 제3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등 얻은것에 비해 잃은것은 더큰것인지도 모른다.

영국은 이처럼 피와 막대한 전비를 들여 재탈환한 포클랜드를 쉽게 내줄수도 없다. 이것이 사태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영국의 고통스런 입장뒤에서 아르헨티나의 對英국민감정은 더욱 거칠어져가고 있으며 패배의 설욕전을 부채질해가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재침공이 임박한 것처럼 주장되고있는 소문들은 신빙성이 희박한것으로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더욱 멍이든 것은 영국보다 아르헨티나쪽인 것이다. 그들은 實利도 名分도 취한것이 아무것도 없다. 연1백80%의 인플레와 13%의 실업률에 시달리는 경제난국이 가중됐을뿐이며 사실 당장 이를 치유하는 일도 숨이 가쁜 실정이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수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당장 침공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前 갈티에리 대통령처럼 국내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또다시 포클랜드전쟁으로 호도하려할것인가, 이것도 어렵다. 국민은 또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침공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대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것이라기보다 이러한 소문으로 부수적인효과를 노리는 프로파간다일가능성이 짙다.

영국은 우선 아르헨티나측의 주장대로 영국군의 포클랜드 주둔과 그에 따른 경비지출의 정당화를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 또 포클랜드수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영국이 아르헨티나와 「적대행위종식협정」을 체결, 어떤 형태로든 사태의 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점에서 포클랜드위기 재연설의 진상을 들여다 볼수도 있을듯하다. 【崔相鎬기자】

◇작년7월, 게양되는 英旗 지난해 7월 아르헨티나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군이 포클랜드의 수도 포트스탠리에있는 총독청사에 다시 영국기를 게양하던때의 모습. 그때로부터 7개월만에 다시 아르헨티나군에 의한 포클랜드재침공설이 나돌고있다. 그 眞僞는 무엇인가.

메아리
랑티에

先進化란 말이 요즘 자주 입에 오르내리니까 미리부터 先進사회의 理想像을 그려보게된다. 先進사회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것일까. 복합적인것이긴하지만 여러요소를 일일이 다 따질것 없이 한 개인이 나이들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先進사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社會像을 바라 先進化를 추진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회답을 찾는것이 된다. 그리고 幸福연습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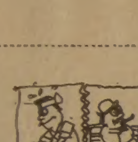
우선 이 문제에 대해 主題발표라고할 수 있을만한 글을 하나 소개하겠다.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장폴·마티스라는 프랑스사람이 최근 「이상한 나라 韓國」이라는 책을 냈다. 외국인의 눈으로보아 좀 이상하다싶은韓國人像들을 모은 것이다. 이 속에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先進프랑스와 비교한것이 나온다.

프랑스어에는 「랑티에」라는 말이 있다. 年金이나 金利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노는 팔자좋은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이 랑티에는 평균적인 프랑스인의 理想像이다. 이들은 주식배당이나 예금이자등으로 생활을 할수있다고 생각하면 미련없이 일자리를 버린다. 아직 얼마든지 일할수있어도 랑티에가 될수 있으면 얼른 그만두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창 일할나이의 사람이 랑티에가되겠다는 프랑스적 생각은 어림없는 생각이다. 한국에서는 근면이 미덕이요 태만은 악덕이다. 점심은 20분만에 먹고 10의 일을 맡기면 12의 일을 해낸다. 이런 나라니까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한것이 당연하다.

다만 랑티에를 일생의 소원으로 생각하는 프랑스인으로서는 한국인은 도대체 무엇을위해 일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갖는다. 한국에는 랑티에가 될수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일할수 있는 동안은 무슨일이 있어도 일하려고 한다. 프랑스라면 파리교외에 아담한집을 지어 살며 시간에는 오페라나 연극을 관람하러 파리시내로 나가는 연령의 사람들, 독서를하며 정원의 장미를손질할 그런 연령의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왜 그처럼일에 집착할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인간의 육체는 한개의 기계에 불과한 것일까. 진짜 인생은 개개인의 私的인 시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늙도록까지 일하는 것에 삶의 보람을 느끼는 한국적 사고방식은 인생의 낭비다. 한국이 랑티에 지향의 사상이 없기때문에 경제번영을 가져온것은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면에서는 한국은 中進國은커녕 빈궁스럽게만 보인다. ―이상이 마티스씨의 所見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한사람의 외국인으로서 근면한한국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랑티에 지향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하고있다.

자, 이 主題를놓고 생각해보자. 랑티에는 프랑스뿐아니라 평균적인 先進사회의 理想像이라고 할수있다. 우리도막연하게는 랑티에 사회가 꿈이다. 애써일하지않고도 편할수있으면 오죽좋을까싶다. 그렇다면 과연랑티에가 우리자신의 先進像이라야 할것인가. 랑티에들이 우글거리는 先進사회구경을 해보면 의문이 생긴다. 공원벤치에 앉아 비둘기에 먹이주는 일밖에는 할일이 없는것같은 사람들. 너무 할일이 많은 우리에 비하면 너무 할일이 없는 사람들. 바둑 바둑 야겠지만 너무 헐렁헐렁하여 헛바람소리가 나는 사회도 부러울것없다. 행과 서커스가 행복의 모두는 아니다. 랑티에들은 스스로「인생을 즐긴다」고 말한다. 편안히만 즐기는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라 열심히 즐기는 방법도 있는것이다. 일하는 즐거움도있고 즐기며 하는 일도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창조하는 일이다. 모든창조는 즐겁다. 창조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만 다 줄것없다. 크든 작든 무언가 한가지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自己存在의 확회요 社會에의 기여다. 너나할 것 없이 살림환경속에서 각자가 공평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사회, 이것이 바람직한 先進像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개척해야할 韓國的인 先進像일수도 있을것이다.



金聖佑
<編輯委員>

經濟체질 완전開放해야
OECD에 加入하려면…
先進國과 같은條件서 競爭
國際입찰서 덤핑自制…産業정책도 世界的안목으로
GNP0·7% 開途國원조·對外거래自由化 의무규정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분야에서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시책을 펴나가야 하는가를검토하고 아울러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어떤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경제적인 면에서 선진국을 지향하는 시책은 먼저 안정기반을 튼튼히 다진뒤에 그 기반위에서「제2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기왕의 경제시책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제2차연도에 들어선 5차5개년계획이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진「경제의 제2도약을 위한 기본구상」같은 중장기 계획들이 모두 선진국화를 목표로하고 있는 계획들이다.

따라서 선진국을 지향하는 경제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기존경제시책이 크게 바뀌게 될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율화와 경쟁체제구축 같은 선진지향적 경제시책들은 종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앞당겨 시행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산업지원제도와 산업보호체제의 과감한 철폐, 시장개방과 경쟁원리의 도입 같은 굵직한 시책들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관계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관세율의 대폭적 인하, 수출입기별공고의 점진적 폐지와 수입자유화율 재고, 소수유치산업부문에 국한된 선택적 산업보호, 관세감면제도의 철폐 같은 시책들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뜯어고치는 일련의 연관성 있는 작업들이다.

이런 시책들은 안정기반위에서의 가격자율화, 은행민영화와 금융자율화, 공정거래제의 본격적인 시행, 시장기능의 창달등 최근몇년간 추진해온 시책들과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선진화시키는 작업들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가 착수하기 시작한 선진국화시책은 이러한 시책들을더욱 발전, 촉진시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곧 선진경제의 質的 조건을 갖추는 작업이라고할 수 있다.

24개 선진공업국들의 협의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바로 이러한 質的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입이 곤란하다. OECD는 가맹국에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 이사회의 만장일치 가결만있으면 언제라도 가입할수있고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수있다. 그러나 일단 가맹국이 되면 OECD협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 의무란 ▲OECD의 제반협정 결의문서의 준수 ▲GNP의 0·7%이상 공적 개발원조 공여 ▲GNP비율에 따른 OECD경비 분담및▲對外去來 自由化 의무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화의무이다. 자유화된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경상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경상거래의 자유화는 사업활동이나 무역에 관련된▲거래▲운송▲보험▲자본소득▲개인여행▲이주자 송금등이 모두 자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사항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더라도 OECD결의나 합의에의해 구속력을 갖게되는 사항이 많다. 국제입찰에서 덤핑을 한다거나 세계적 수급상황을 무시하고 시설을 늘리거나 생산을 늘리는 일등이 규제를 받게된다. 요컨대 자국이익에 다소 손상이 있더라도 세계경제 전체를 생각해서 선진국답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의무사항과 규제를 준수하기위해서는 그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개방·자율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련의 선진화시책을 통해 개방·자율·경쟁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선진경제의 질적조건을 준비중이고 아울러OECD가입의 조건을 마련해나가고 있는중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가입하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할 수 있다.

경제의 구조적인 면-질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양적인 외형적인 면만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없는것은 아니다. 가맹국중에서도 터키는 1인당 GNP가 1천3백30달러(79년), 포르투갈은 2천1백80달러로 우리보다 낮거나 큰차가 없다. 나라전체의 경제력으로 비교할 때 그리스 같은 나라도 그렇게 어려운 상대라고 할 수는 없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이익이 되는점도많다. 국위가 선양되고 외교적성과가 클뿐아니라 선진공업국들의 기술과 정보, 경험을 손쉽게 수용해들여올수 있게 된다. 선진국들의 협의체인 OECD회원국, 자격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는것도 의의있는 일이라고 할수있으며 동양에서는 일본에이어 두번째로 회원국이 되는것은 자랑스러운일이 될수있다.

OECD는 그산하 30개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철강위원회와 조선위원회에 한국이 가입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해온일이 있으며 OECD와 한국이 경제협의회를갖자고 제의해온일도 있다. 78년10월 OECD 이사회는 철강위원회를 설립하면서 한국과 멕시코,인도,브라질도 가입하라고 요청했고 79년11월에는 한국과 멕시코에 대해 경제협의회를갖자고 요청했으며 82년 3월에는 조선위원회에 가입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선위원회는 가입압력이 하도 심해 지난해10월28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WP6(조선특별작업부회)에 정부대표 대신 조선협회 한국기계 연구소등 민간대표를 보내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가입요청은 한국을 무서운 경쟁상대로 의식해서 OECD회원으로 손발을 묶어 규제하려는 저의에서 나온것이며 이때문에 인도 브라질 멕시코등과 함께 우리도 가입요청을 거절 또는 유보해놓고 있는 상태다.

철강이나 조선 면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선두다툼을 벌일수있는 대국이니까 공동규제의 틀속에 묶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OECD관계국들이 판단했을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그 틀에 묶이는것이 불리하니까 가입을 유보해놓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나가기에는 아직 우리실력이 모자란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OECD 산하 위원회에 부분적으로 가입하는데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OECD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더많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 우리경제의 체질과 구조가 아직 선진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수용할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량위주의 외형적 고도성장을 추구해온 지금까지의 경제정책방향을 틀어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현재의 경제시책이 성과를거두고 결실을 맺게 된다면 우리는 OECD회원국으로서 선진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해나갈수 있게될것이다. 그 시기는 우리가 하기나름에 달려있다. 【朴武기자】

海外토픽

最强電子현미경
★시카고大학자들제작착수

美시카고대학 과학자들은 물체를 1억5천만배까지 확대시킬수있는 세계최강의 전자현미경 제작에 들어갔다.

이 현미경은 예를 들어 해수욕장용고무공을 지구의 크기로 확대시킬 수가 있으며 기존의 세계최강현미경보다도 5배나 더 강력하다.

이 현미경제작책임자인 앨버트·크루어씨는 이 현미경을 통해 사상처음으로 고체물질의 原子를 낱낱이 살필수가 있게 됐다고 밝혔다.

크루어씨는『현미경이 이론에 따라 제 기능을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90%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약 3년이내에 완성되면 원자물질연구에 새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UPI】

레이건재출마不願
★해리스輿論조사支持하락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분석가 루이스·해리스씨는 레이건美대통령의 취임 두돌을 맞은 20일 레이건대통령에 대한 美국민들의지지가 무너져버렸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레이건대통령의 재출마를 원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씨는 1월초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레이건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美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벗어났으며 美국민들은 이제 그들이『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돼버렸다』고 믿고있다고말했다. 【워싱턴=UPI】

침실侵入犯 퇴원
★精神病院떠나서 기쁘다

지난해7월 버킹엄宮의 엘리자베드여왕 침실을 침입했던 미켈·파간(30)이 19일밤 리버풀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15주전 런던 중앙형사법원의 명령에따라 무기한으로 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었다.

파간은 영국법에 버킹엄궁을 침입한 행위로 기소되지는않았으나 자동차 절도와 그의 양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의사들이 그를 퇴원시킬때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토록 선고받았다. 【리버풀=UPI】

◇83 春夏패션 2명의 모델이 프랑스의 루이가 디자인한83년 春夏하이패션의상의 일부인 흰색의 짧은 면실크드레스를 선보이고있는 모습. 【파리20日AP=聯合】

매달 돈支給받아
★바웬사夫人 男便구금때

前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 부인 다누타·바웬사는 남편이 구금된이후 압류된 자유노조자금에서 폴란드人의 평균 월수입보다 3배이상이나 되는 돈을 매달 받아왔다고 한 폴란드 관리가 20일 주장했다.

그다니스크의 前자유노조 행동주의자 취업허가서발급사무소 책임자인 볼레스와프·나피에라이는 이 사무소가 81년12월13일서부터 월3만2천즐로티(약30만원)씩을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바르샤바=UPI】

◇머리로 받쳐든 찻잔 지난17일 파리에서열린 세계『미래서커스』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몽고의 곡예사 엔체체그양이 머리로 찻잔을 받쳐든 기발한 묘기를 연출하고있다. 【파리20日AP=聯合】

SPECIAL SALE
특별할인
TELEFUNKEN
BRAUN
아카데미 TV. STEREO

EAST
MORNINGSID MALL
256 MORNINGSIDE AV. SCAR.
KINGSTON RD. & MORNINGSIDE
☎ 282-2820

WEST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農業用水 개발·관리에 도움줄

「가뭄·洪水지도」 나왔다

지난30년간의 降雨量등 종합分析

물에관한 모든 科學자료 담아

서울大 農大 농업개발硏 1년 硏究끝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큰 도움이되는 「농업용수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大농대 농업개발연구소 (연구책임자 朴成宇교수) 가 전국9개 농과대학교수 21명과 함께 지난1년간 연구한 이 논문은 전국농경지에 관한 지난 30여년간의 농업용수 수요량과 강우량, 하천유수량등을 계절별로 집계, 컴퓨터로 정밀분석처리해 가뭄지도와 홍수지도를 만든것.

이같은 연구결과가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것은 때늦은감이 있으나 전국에 산재한 저수지와 보(洑)의 물을 과학적으로운영, 「하늘만 쳐다보는농사」에서 벼의수확량을 높일수있는「과학영농」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해 뜻이깊다.

농수산부의 용역의뢰에 따라 만들어진 이연구조사는전국각지역에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날 확률, 벼의 품종별물소비량, 저수지의 용수량, 가뭄정도에 따른 수확감소량등을 컴퓨터로 정밀분석하고 이를토대로 각저수지등 수리시설의 설계와 용수관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밀분석에따라 지역별로 가뭄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하게 일어나는가 한눈에 밝혀주고 있다.

전국 54개지역의 30년간의 매일 강우기록과 82개지역의 40년간의 월강우기록을 컴퓨터로 분석, 가뭄이 일어날 확률을 표로 나타냈으며 국내 최초로 전국 각지역에 따라 가뭄이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를 한눈에 볼수있는「가뭄지도」1백68장을 제작했다.

이같은 연구성과는 지금까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막연하게 표현하던 가뭄, 즉 한발(旱魃)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설정한 전국의 한발대(旱魃帶)를 파악하게 한것. 즉 전국평균으로 매일 내린 강우량의 누계가 30mm에 못미칠때 「가뭄」으로 보는것이 타당한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충북 淸州지방의 경우「8월중 3년에 한번은 연24일간의 강우량합계가 20~30mm에 그치는 가뭄이오며 40일간의 총강우량이 20~30mm밖에 되지않는 가뭄현상은 30년에한번씩나타난다」는식으로 각지역별로 가뭄의빈도와 강도(强度)를 예측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한발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경우는 드물며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大邱북부·義城·榮山江중류및 木浦부근·浦項과 釜山사이·江華주변·春川북부·瑞山부근의 서해안지역등인것으로 이연구결과는밝히고있다.

홍수에 대한 연구는 漢江·洛東江·榮山江등 전국주요하천유역의 62개지역에서 강우량기록을 10분단위로 나눠분석, 한꺼번에 어느정도의 비가 내린다는가를 확률적으로알수있는 이른바 「확률강우강도치(強度値)」를 계산한것.

예를들어 서울의 경우 20분간에 시간당 94.3mm의 비가 내릴 확률은 10년에 1번정도이며 20년에 1번은 시간당 1백29.4mm의 비가 20분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집중강우현상을 전국각지역에따라연결한「홍수지도」에따라비관측지점에서의 기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강우자료를이용, 전국하천의 유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작성, 이에따라 전국 댐,저수지,보(洑)등 수리시설의 홍수에 대한 안정성판단의 기준을마련한 것.

이 연구는 또 서울大를 비롯 전국9개농과대학의 실험포장(圃場)에서 각종벼의 생육단계와 토양,기상조건등에 따라 벼의 성장에 필요한 강우량, 즉 물의 양을 측정, 컴퓨터에의해 유효우량을 산출할수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 8월상순~중순사이에 가장 많은양의 물이 필요하며 벼의 성장단계에 따라 수심을 변화시켜 물을 대주면 수확량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연구는 이같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국각지의 저수지의용량·유역의 특성및주변농경지의 여러조건등을파악, 가뭄으로 인한 지역별농사피해정도를 산출할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한 지역에 가뭄이 계속될경우 그지역저수지가 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즉 내한성(耐旱性)을 정확히 알수있게 해 물관리 대책과 농업용수개발의 지침을 정할수있는 바탕을 마련한것.

지난 1910년 이래 지금까지 전국에 4만여개소의농업용수시설이 건설되었고 이같은 수리시설들의 시가는 6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 연구보고서는 지적하고수리시설의 위치와 기능, 관리조직등이 전국규모의 과학적인 실측자료와 계획에따라 결정되어야만 농업의 생산성이 제고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연구의 책임자인 朴成宇교수는『귀중한 국가예산을 투입한 각종수리(水利)시설이 부정확한 통계와 부족한 기초연구및 한국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외국의 이론이나실험에만 의존해 만들어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계기로과학적방법과 계량적분석에의한 농업용수 개발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이연구결과를 농업용수 개발및 관리 방법의 과학화,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姜秉泰기자】

◇大寒 추위속에 활짝핀 진달래

전국을 얼린 大寒추위에도 아랑곳없이 西歸浦市 中文洞 中文충혼묘지 앞뜰에 진달래가 활짝피었다. 날씨가 들쭉날쭉하다보니 꽃이 계절을 착각한 모양이다. 【濟州=聯】

浦項바닷가에 20代여인變屍

【浦項】 21일상오9시10분께 경북浦項市두湖洞 두호어선 신고소옆 바닷가에 신원을알수없는 25세가량의 여자변사체가 파도에 밀려온것을 朴경자씨 (34·여·浦項市두湖洞69) 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聯】

청소차에치여 「植物인간」 5천만원 賠償판결

釜山민사지법 市에

【釜山】 부산지법민사부 송재헌부장판사는 20일 부산東萊구청소속 청소차에치여 식물인간이된 趙柄源씨 (25·경남梁山郡機張面淸江里249의2) 의 가족이 부산시를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부산시는 趙씨에게 4천8백38만원, 趙씨의 부모에게 각1백만원, 趙씨의 3형제에게 각50만원씩 모두 5천1백88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

趙씨는 지난81년 8월19일하오1시께 부산北區周禮洞 동곤보일러앞 횡단보도를 지나다 東萊구청소속 부산7가1678호 8톤 청소차 (운전사 유대선·42) 적재함에 머리를 받혀 식물인간이 됐다.

재판부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趙씨가 지나가는것을 발견하고도 「지나가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지도않고 그대로 진행한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 『사고차운전사를 고용한 부산시는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聯】

釜山「市民논단」이끄는 徐世旭씨

향토文化의 堡壘

私費로 4년간 140여회… 月刊誌도

근대화와함께 향토문화가 점차 퇴색해가고있는 것은 전국 각도시의 공통된 현상이다. 부산토박이徐世旭씨 (38·사진) 는 바다바람과함께 어만가는 港都 釜山의 향토문화를 뿌리내리기위해 지난4년간 매주목요일마다 「시민논단」이라는 학술강좌를 이끌어오고있다.

목요학술회사무국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진 그지만 알고보면1백50만원짜리 전세방 한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빈 털터리.

釜山지역의 「시민대학」이라고할수있는 이목요학술회를 위해 지역경제인들이 그동안 도움을 주기도했지만, 그는 매월지출되는 경상비등을 위해 자신의 얼마되지 않는부업수입까지도 털어넣고있다. 그의 부업이란 몇군데 업체의 회보를 만들어 주거나 저명인사들의 연설문 글등을 대필해주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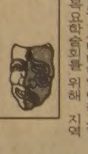
지난 가을에는 부인이 난산으로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목요일의 이 강연만은 거르지않고 계속해왔다.

그렇게해서 이룩어낸 학술강연회가 지금은 1백40회를 넘는다. 강연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나 釜山지역의 지식인·문화인들은 이 강좌의 수준이나 계속되는 이 사업이 시민문화정착에 미치는 영향등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徐씨는 이에 만족하지않고 「木曜文化」라는 월간잡지를 내고있다. 이 월간물은 아직은 부피가 고작 60~70페이지를 넘지못하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徐씨는 이 초라함을 釜山문화의 요람으로 키워나갈 꿈에 부풀어있다.

釜山은 인구3백50만으로 서울에 이어 이나라 제2의 도시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 釜山지역에서 발행되는 월간지나 계간지 하나없는 문화의 不毛를 徐씨는 안타까와한다.

문화는 불가능으로 여겨왔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갈고 닦는 작업이라고 할수있다. 이미 지하철건설공사가 한창인 대도시 釜山에서 그는 삶의 內容과 의미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외로운 향토인이다. 【金大成기자】



淸州사범대학장 李東熙교수승인

문교부는 21일 淸州사범대학장에 李東熙교수 (51·사진) 의 취임을 승인했다. 李학장은 서울大를 졸업한뒤 육사교수부장을역임한 예비역 준장이다.

70%가 2백98점 이상

탈락 高得點者 再修많을듯

서울大 합격자발표

首席합격 法科大 洪承勉군 최고령 農大 47세朴賢圭씨

서울大는 21일 83학년도신입생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大에 의하면 합격자의 성적분포가 예상보다 높아져 전체의 70%가 학력고사점수 2백98점이상이며 2백92점 이상은 80%, 2백74점이상은 90%로 밝혀졌는데 올학력고사성적 3백점이상 고득점자 6천3백78명의 60%가 넘는 4천명이 서울大에 합격한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가 미달됐던 농대임학과등 10개학과는 2·3지망에서 충원, 모두 정원을채웠다.

한편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에서 유리했던 여학생은 1천3백22명이 합격해 전체의 22%를 차지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大는 모집인원의 70%는 1지망중에서선발하고 나머지 30%를 1지망탈락자와 2지망자중에서 선발했는데 고득점자가 몰린 法大·의예과·전자공학과등의경우 모집인원 모두가 1지망자만으로 채워져 탈락한수험생들이 대부분 후기대학을 포기할것으로 보여 고득점 재수생이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모집단위별로 보면 法大의 경우 3백64명 모집인원에 6백90명이 지원, 3백26명의탈락자가 생겼는데 이중 경제학과19명, 경영학과29명등모두80여명만이 2지망학과에 합격되고 나머지는탈락됐다.

서울大는 예·체능계 합격자명단은 오는26일발표한다.

서울大수석합격은 예상대로 학력고사 최고득점자로 法大를지원한 洪承勉군 (18·高麗高3년) 이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朴賢圭씨 (47·농대임학과) 최연소자는 全潤愛양 (14·실제나이는18세·의예과·전주기전여고3년) 으로밝혀졌다.

또 합격자중에는 고姜在求소령의 외아들 秉勳군(18·서울永東高) 이학력고사 3백20점, 내신1등급으로 전자공학과에 합격했다.

한편 서울大가 최연소합격자로 발표한 의대의예과 全潤愛양은 호적에 「68년 3월 5일생」으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만14세로 알려졌지만 실제나이는 64년 8월23일생으로 올해 만18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쌍동이 敎授되는게 꿈"

서울大나란히合格 李成龍·成憲군

부산출신인 李成龍군(19·부산東萊高)·成憲군(19·부산聖都高)쌍동이 형제가 서울大에 나란히 합격했다.

3분먼저 태어난 형 成龍군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동생成憲군은 인문대학 인문Ⅰ계열에 합격했는데 이들형제는 부산南星여고 수학교사겸 교무주임인 李東浩씨 (49·부산釜山鎭區凡田洞71의106)의 4남매중 세째와 네째.

키1백78cm인 형은 꼼꼼한 성격으로 학력고사성적 2백99점에 내신1등급을 받았으며 장래희망은 도시공학을 전공하여 대학교수가 되는것. 형보다 2cm더 큰 동생은 활달한 성격이며 영어영문학을전공, 형과 같이 쌍동이 교수가 되는것이 꿈이라고.

부산성지국교와 東萊중학도 나란히 다닌 이들은 방과후 도서관에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으며 학교성적은 모두 상위권이었다.

합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일상경, 어머니 成貞喜씨 (47)와 함께 외할아버지인 成慶麟씨 (73·국악인·인간문화재1호·서울鍾路區松月洞3의1)집에머물고있는 쌍동이형제는 신체검사를 마친뒤 부산에내려가 틈틈이 즐기던 농구나실컷 하겠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釜山집으로 시외전화를 걸어 합격했다는 말만전한뒤 실컷 울었다는 어머니 成씨에 의하면 위로자매를둔뒤 생활이 어려워 단산하려했으나 하늘로 어우러져 올라가는 청룡과 황룡을 붙드는 태몽을꾸고 낳아보니 아들쌍동이였다면서 이들 쌍동이 형제가 태몽처럼 성공하기만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쌍동이 대학교수가 꿈이라고 말하는 李成龍군㊧과 成憲군형제.

사회安定기반 強化

올 첫地方장관회의

내무부는 21일 올들어 첫 지방장관회의를 열고 금년도 행정지침등을 시달했다.

이 자리에서 盧泰愚장관은 『올해 내무행정의 제1과제는 사회안정에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내무공무원은 이의 긴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일반행정력과 치안력이 긴밀히 협조, 사회안정의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本社「5大文化賞」 어제시상

한국일보社가 제정한 각종 문화상을 종합시상하는 1983년도 「한국5大賞」 시상식이 21일 하오4시 한국일보社 12층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시상식에서 제15회 한국창작문학상, 1983년도 한국신춘문예, 제13회 한국문학번역상, 제23회 한국출판문화상및 올해 신설된 주부생활수기수상자들은 한국일보社의洪惟善부회장으로부터 상패와 원고료, 창작지원금을받았으며 원로문인 金東里씨가 축사를 했다. 시상식이 끝난후 참가자들은 13층 홍실에서 다과를 들며 수상에따른 뒷이야기를 나눴다.

맬다이브 나포 오룡37號 선원 23명 석방

船長·1등항해사는 減刑

인도양상의 小島國 맬다이브에 지난7일 영해침범혐의로 나포된 한국어선 오룡37호선원23명이 특사되어 풀려났다고 21일하오 외무부에 긴급보고됐다. 그러나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던 선장과 1등항해사는 감형됐다.

4백톤급 저인망어선인 오룡37호는 작년11월3일 맬다이브국 근해를 지나던중 영해침범혐의로 나포되어 선원들은 5~6월 형을 작년12월16일 선고받았었다.

춘천에 豚콜레라

【春川】 春川지방에서 올들어 첫돼지콜레라가 발생, 5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21일 春川市에 따르면 春川市牛頭洞 정화진씨의 양돈장에서 지난12일부터 돼지콜레라가 발생, 이날 현재 사육중인 6백50여마리중 58마리가 죽었다.

1~2개월된 새끼돼지들로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처음에는 사료를 잘먹지 않다가 심한 열이 나고 설사를하면서 온몸에 붉은 반점을 띠면서 죽는다. 【聯】

示威혐의 高大生 3명에 實刑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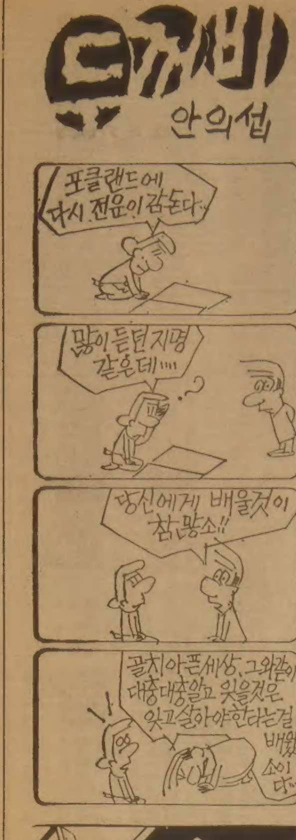
서울형사지법은 21일 전高大생 洪起源피고인 (22·금속공학과3년) 등 3명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 洪피고인과 金光景피고인 (26·사회학과3년) 에게는 징역1년6월, 魚美淑피고인 (22·여·사학과2년) 에게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학교축제가있던 지난해11월4일과 5일 학술강연회장과 탈춤공연장에서 반정부 유인물 1백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梨大生 2명도

서울형사지법은 21일 전梨大생 이경숙피고인(23)과 한혜정피고인(23) 등 2명에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두피고인 모두에게 징역1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梨大 4층강의실 창문위에 올라가 반정부유인물을뿌리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 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로빈후드종합식품에서 Pizza Delight
또는 피자 Patio 후랜취아이스
주인 구함

캐나다의 가장 큰 피자연쇄상점으로 국내 150개 이상 널리 퍼져 있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피자 Delight와 피자 Patio는 당신에게 성공적인 사업운영의 견고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급품질상품과 적극적인 계획있는 뒷받침으로 회사를 밀어줍니다.

신청서를 현재 접수중에 있읍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십시요.
- 증명된 사업기록서
- 장소들을 선정.
- 완전 훈련(트레이닝)
- 구조적인 감독
- 개업광고 캠페인
- 광고
- 판매촉진 프로그램
- 자금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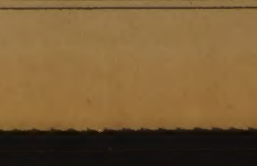
피자 Delight및 피자 Patio는 당신, 장래를 위해 큰 투자가 됩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좌편·혹은 전화나 편지하십시요.
PIZZA DELIGHT PIZZA PATIO RESTAURANTS
DIVISION OF ROBIN HOOD MULTIFOODS LIMITED
GENERAL MANAGER
243 CONSUMERS RD.
WILOWDALE ONTARIO
(416)496-1515
We do it right at Pizza Delight Pizza Patio

TEC
전자계산기
저울

* 전자계산기…
$395부터
* 저울……
$795부터
■ 계산기 종이(Paper Rolls)
특별세일 4800 per 100
* 모든 기계에 써비스합니다.
TECHNIC CASH REGISTER LTD.
1368 Kennedy Rd.
☎: 757-9209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 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 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 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30AM-2:30PM
6:00PM-1:00AM
일요일 6:00PM-1: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960-1765

Indoor
골푸장
더 많은 골퍼가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Member Fee를 인하했읍니다.
하루입장료 5불(무제한 연습할 수 있음)
컴푸터 사용포함
Full Member Fee : 1983년 4 월까지
50불로 인하
※초보자를 위해 매주 수요일 무료 레슨
신년 영업시간표
월~금 : 12시부터 저녁 9 시
토 : 오전11시~오후 6 시
일 : 오후 1 시~오후 6 시



638-4658
298-3584
1230 SHEPPARD AVE, W, UNIT 14, 15 DOWNSVIEW, ONT.

◇프로미식축구 선수로서 처음 아마 육상대회에 참가하게된 네헤마이야。

슈퍼話題

프로選手가 아마로…올림픽 참가 관심
네헤마이야, 美프로풋볼 손떼고 허들로

【로스앤젤레스20日AP합동】 美프로풋볼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즈의 레널도·네헤마이야(23)가 프로선수 신분에도 불구하고 허들선수로서 美아마추어육상경기에 참가할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같은 결정은 19일 美올림픽위원회 윌리엄·사이몬 위원장에의해 발표됐는데 프로선수가 아마추어 자격을갖고 육상경기에 참가하게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네헤마이야는 국제육상연맹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아무런 국제경기도 참가하지 못했다.

네헤마이야의 육상경기 참가는 非미국인이 참가하지않는 미국내의 경기에 한하며 외국선수가 1명이라도 뛰는 대회는 나갈수 없다.

네헤마이야는 지난해 4월 프로풋볼 포티나이너즈팀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후에 육상선수를 지원했었다.

사이몬위원장은 네헤마이야가 84년 LA올림픽에도참가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蹴球스타 不世出의 라이트윙 '작은새'
브라질 가린샤 알콜中毒死

【리오데자네이루合同】 펠레, 디디등과 함께 이름을 날린 브라질의 세계적축구선수 가린샤(본명 마누엘·프란시스코·도스·산토스)가 20일 알콜중독으로 이곳의 한 병원에서 49세를 일기로 숨졌다.

병원의 한대변인은 가린샤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는 과거 여러차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으며 19일 알콜중독증세로 다시 입원했다고 말했다.

관중들에게 「작은새」로알려진 가린샤는 58년과 62년 월드컵대회에 출전, 브라질이 우승하는데 결인차 역할을했으며 축구전문가들로부터 1백년에 한사람정도 찾아볼수 있는 불세출의 라이트윙이라는 찬사를받았었다.

가린샤는 여러가지 말썽과 알콜중독에 시달리며 말년을 불운하게 보냈다.

◇"白雪의 鳥人"처럼 전국신인스키 알파인대회전경기서 44초38로 1위를 차지한 白永濤(단국공고)이 역주하고있다. 【21日龍平=[illegible]=합동】

零下12도속 시즌·오픈
檀國工高 백영준 脚光

=新人 스키大會=

【龍平=金仁模기자】 83년도 시즌을 여는 제12회 전국신인스키대회가 1백19명의 스키어들이 참가한가운데 21일 龍平스키장 실버라인에서 열렸다.

영하12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 적설량이 40여㎝밖에 안되는등 슬로프 조건이 좋지않았으나 스키어들은 추위도 잊은채 열전을 벌였다.

특히 이번대회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새로 도입한 자동계시기를 사용, 기록의 정확을 기하게됐다.

슬로프 사정으로 대회전 한종목만 치른 이날대회 남일반·대학부에서 白重鉉(아주대)은 46초40을 기록, 7백m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7백m 코스에서 檀國工高의 白永濤가 44초38을 마크, 기염을 토했다.

여일반·대학·고등부에서는 3분의1정도의 선수가 기권한가운데 李垣嬉(서울대)가 47초85로 우승했으며 여중부에서는 裵계현(장원중)이 45초18을 마크, 1위를 차지. 유망주로 등장했다.

◇대회전기록 (각부 1위)

▲남일반·대학부(7백m) ‖白重鉉(아주대) 46초40 ▲동남고부(7백m) ‖白永濤(단국공고) 44초38 ▲동남중부(6백m) ‖李相鎬(부산장원중) 45초64 ▲동여일반·대학·고등부(6백m) ‖李垣嬉(서울대) 47초85 ▲동여중부(4백50m) ‖裵계현(장원중) 45초18

冬季스포츠 활짝

강추위가 몰아친가운데 동계스포츠(빙상·스키·아이스하키)가 본격적인시즌에 돌입했다. 겨울철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있는 스키는 21일 龍平스키장서 제12회 전국 신인대회를 개최, 금년도 스키경기의 시즌오픈을 장식했으며 이날 태릉국제스케이트장서는 전국남녀 주니어선수권대회가 폐막, 신예 崔誠允(숭의여고)이 여자부 5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제8회 KBS배쟁탈 아이스하키대회가 지난해 우승팀 高麗大를 비롯한 대학4개팀이 참가한가운데 동대문실내링크서 풀리그로 열전을 벌이고있다.

=주니어氷上=

崔誠允 5冠王차지 기염
大會신기록 1개도 없어

崔誠允(숭의여고)은 83년도 전국남녀 주니어빙상선수권대회 마지막날 여자 1천m와 3천m에서도 1위, 4개전종목을 휩쓸고 여자부 종합우승까지 차지하여 5관왕에 올랐다.

전날 5백m와 1천5백m에서 1위를 차지, 주목을끌었던 崔誠允은 21일 泰陵스케이트장에서 속행된 대회마지막날 여자1천m서 1분33초79로 우승한뒤 3천m에서도 5분11초89를 기록, 2위 劉富媛(5분21초23)을 10초가까이 앞질렀다.

崔誠允은 종합성적에서도 1백93·176으로 우승했다. 이 대회서 대회신기록은 1개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남자종합성적에서는 첫날 5백m서 1위를한 李準鎬(서울고)가 남자 1천5백m와 5천m서 각각2위를 차지, 1백81·664점으로 우승했다.

裵基兌(서울고)는 전날 3천m에 이어 이날 남자1천5백m에서 2분10초17로 우승했다.

◇여자부 4개전종목을 휩쓸어 5관왕이된 崔誠允。

◇최종일전적

▲남자1천5백m ‖①裵基兌(서울고) 2분10초17 ②李準鎬(서울고) 2분13초09 ③金寬奎(서울체고) 2분13초47 ▲동5천m ‖①金寬奎 7분58초42 ②李準鎬 8분10초06 ③黃翊煥(의정부고) 8분12초13 ▲여자부1천m ‖①崔誠允(숭의여고) 1분33초79 ②金英玉(이화여고) 1분36초86 ③朴善美(의정부여중) 1분37초68 ▲동3천m ‖①崔誠允 5분11초89 ②劉富媛(유봉여고) 5분21초23 ③金英玉(이화여고) 5분23초01

◇종합성적

▲남자부 ‖①李準鎬 181·664점 ②金寬奎 182·490 ③羅雲奎(의정부고) 184·386 ▲여자부 ‖①崔誠允 193·176 ②金英玉 199·0 ③劉富媛 202·233

=아이스하키=

작년霸者 高大위세
「해트트릭慶熙」 격침

제8회 KBS盃쟁탈 아이스하키대회가 작년우승팀 高麗大를비롯, 4개대학팀이 참가한 가운데 20일 東大門실내링크서개막, 高麗大와 延世大가 각각첫승리를거두었다.

4팀이 풀리그를 벌이는대회 첫날경기서 高大는 우세한 개인기를 바탕으로한 속공을 펼쳐 尹尙勳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慶熙大를 8-3으로 완파, 지난해 4관왕의 위세를 떨쳤다.

이날 高大는 2-2의 타이를 이룬 2피리어드 11분께 RD金聖勳이 慶熙大GK의 스틱을 맞고 나오는 퍽을 골문에 밀어넣어 3-2로 앞선후 이어 LD韓圭俊이 한골을 추가, 기선을 잡았다. 高大는 3피리어드에서 대거 4점을 뽑아 8-3으로 낙승했다.

延世大와 光云大의 대전에서는 선수층이 고른 延世大가 짜임새있는 공격으로 10-4로 대승했다.

◇첫날전적

연세대	10	2-1 6-2 2-1	4	광운대
고려대	8	4-1 2-1 2-1	3	경희대

선수宿食費 35弗로
LA올림픽 조직위

【로스앤젤레스21日=李台永특파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84년 올림픽 각국선수들의 숙식비를 선수 1인당 하루35달러로 결정했다.

피터·위베로트 조직위원장은 이날 IOC와 숙식비문제를 협의한끝에 1일 35달러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조직위측은 당초 55달러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아직도 35달러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 계속 인하교섭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때는 20달러, 80년 모스크바올림픽때는 1일 18달러씩으로 책정됐었다.

재일동포 朱東植·金茂美
해태팀入團 교섭

재일동포 프로야구선수 朱東植(35·한신타이거즈)과 金茂美(29·히로시마 카프)가 해태타이거즈와의 입단협상을 위해 21일하오 JAL편으로 입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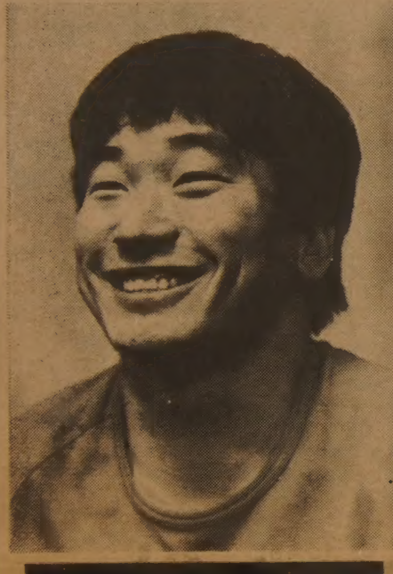
해태타이거즈는 두선수와 최종접촉을 거쳐 이번주말중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투수인 朱東植은 계약금3천만원에 연봉2천4백만원, 강타자이며 2루 주전포수인 金茂美는 계약금2천만원 연봉2천만원수준의 대우를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해태 金應龍감독은 『아마추어 감독시절 친선경기를가져 朱東植의 기량을 잘알고있다. 변화구에 능해 나이에 관계없이 국내서도 큰활약을 할것이다. 가장 필요한 두선수를 얻게돼 전력에 큰도움이 될것같다』며 기대를걸었다.

紀念記章 인증서
孫基禎씨에 전달

역대올림픽에서의 육상스타중 생존자에게수여되는 기념기장의 인증서가 20일 베를린올림픽마라톤 금메달리스트 孫基禎씨에 전달됐다.

이 기념기장은 1912년 창립된 국제아마육상연맹이 지난해 창립60주년을 기념하여 생존해있는 자토펙·자바라·孫基禎씨등 국제육상발전에 공이큰 원로 20명에게 증정한것으로 그인증서가 20일 孫씨에게 전달된 것이다.



역도 李龍求

"침체 引上서 新紀元수립"

내품에 83년을… ⑧

한국역도가 국제무대서 메달을 노릴수 있는 종목은 경량급이다. 安智榮이 아시안게임 2連覇를 했지만 국제무대에 명함을 내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기대를 걸수있는 선수는 60㎏급의 李龍求(조폐공사). 李龍求는 뉴델리 아시안게임 인상서 112.5㎏, 용상서 162.5㎏(종전한국기록 157.5㎏)을 들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그의 용상기록은 아시아신기록일 뿐만아니라 세계기록 3위에 해당되는 대기록이었다.

60㎏급 인상 세계기록은 쿠바의 다니엘·누비스가 갖고있는 136㎏, 용상은 불가리아의 레제브·레제보프가 수립한 170.5㎏인데 李龍求는 용상 세계기록에 불과 8㎏ 뒤지고있다. 따라서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역도서 종목별 시상을 한다면 李는 3위이내 입상가능성이 짙다.

허리힘 보완에 總力戰…LA향해 달음질

李龍求의 큰 약점은 인상. 체격상의 핸디캡 때문에 기록진전이 둔하다. 그러나 印度아시안게임서 인상 한국기록을 경신한 자신감으로 가득차있어 앞날은 한층 밝다고 할수있다.

『李龍求는 허리가 짧고 팔과 다리가 길다. 따라서 바벨을 잡는 자세서 몸의중심이 뒤로 처진다』고 李宗奎코치는 지적하고있다.

역도에서 허리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선수들은 외국선수에 비해허리가 약하다. 허리운동을 강화하는것이 바로 세계수준으로 발돋움하는 첩경이라고 李宗奎코치는 말하고있다.

『泰陵 강화훈련서 우선 허리의 힘을기르는데 전력투구 하겠읍니다』

인상이 부진한 반면 용상기술은 특이하다. 스피드가 있고 탄력을 이용해 짧게 채듯 들어올리는 스타일은 다른선수들이 흉내낼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작년9월 유고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서도 李龍求의 용상 스타일은 특이해 각국선수와 임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는것.

역도계는 李龍求를 LA올림픽을향한 비밀병기로 감추어두고 있다. 趙容時대한역도연맹회장도 李龍求에 집중적인투자를 하겠다고 말하고있다. 70년대들어서면서 한국선수로 세계3위 기록을 유지한 선수는 李龍求밖에 없다. 현재 李의 성장속도로보아 8㎏의 갭은 능히따라잡을수 있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오는10월에는 소련에서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이대회가 LA올림픽을 대비한 예비테스트 무대인데 이대회서 李의 실력이 세계정상급 수준이냐가 판가름 나게된다.

『금년초는 인상 훈련에 중점을 두겠읍니다. 그리고 용상에도 주력, 균형있는 발전을 하겠읍니다』

李龍求는 인상에서 세계기록과 23.5㎏의 큰차가 난다. 이 차를 10단위로 끌어올린것이 목표. 용상 8㎏차도 5㎏이내로 좁히도록 총력 전력투구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金泳德기자】

◇李龍求신상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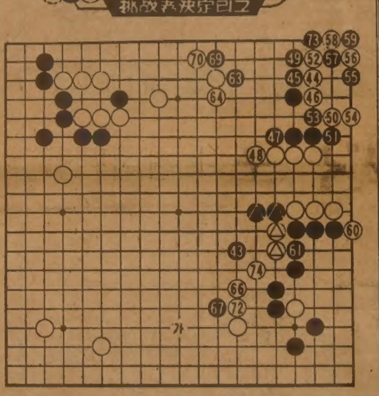
본적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269
주소	은평구불광동331—117
가족관계	李允圭(56·부) 全惠敏(50·모) 2남1녀중 막내
생년월일	61년3월5일
키	1m62
체중	60㎏
학력	仁昌中高졸업(80년)
취미	당구

名人戰

第14期 [illegible]

第8局 第5譜 43~74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1敗>
黑(7段) 徐奉洙<1勝>



徐6단은 항상 말없이 끈질기는 타입이다. 그리고 오늘은 「홍씨」 대선배앞에서 예의바르게 [illegible] 토실한 몸을 한껏 주그린모습이 여간 거북하게 보이는것이 아니다.

전보에서 黑43까지로 불리한결과를 초래한 徐6단은 이곳의 손실을 한시바삐 보충할생각인지 白44로 침입했다.

하지만 대세는 결코 낙관할것은 못되고 흔히말하는 이제부터의 국면이므로 이렇게 성급하게 굴 필요는 없었다. 국후에 지적된대로 44는 「가」자리에 先行하여 느긋이 진행할 시기며 이왕 우상귀쪽에 손을 댈바에는 49자리에 달려가야 좋았다. 요컨대 白44는 패착이랄만한 대악수였던 것이다.

白、조급한 침입

어쩌면 徐6단은 黑47의 호착은 당하더라도 59까지 패를내면 된다고 보았을지 모른다. 패감이라면 우선 白60이 있다. 그러나 실상 白60은 61자리를 찌었어야 패감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귀쪽 패를 이기고 白을 살릴수 있었는데 徐6단은 여기서도 조급한 수를 두어버렸다.

趙南哲8단의 해설에 따르면 白이 그렇게해서 귀를 살리더라도 白44이하의 작전은 대실패. 더구나 黑73까지는 실리를 너무 크게잃어 문제라고 한다.

수순중 黑61은 △표를 묶어놓는 호착이거니와 이렇게 돼서는 白74로서 ▲표를 공격할밖에 없다. 62, 68, 71…패.

【一凡】

張吉山 <1646>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6)

또한 한양으로가는 물건은 경강 모신에게로 보냈다. 이경순은 일부를 떼어 송부리패와 바꾸기도하였고, 송부리패는 주로 도성주변의 난전꾼들을 장악하고 있었던것이다. 천마산 송부리일당은 위로는 포천 송우점(松隅店)과 도봉산 아랫녘의 다락원(樓院), 그리고 남으로는 광주 송파(松坡) 삼전나루 저자에까지 식구들이 퍼져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검계의 계원들이었는데 칠패와 배오개에도 그들의 식구가 있었다. 그들은 퇴계원 예전의 동료들이 주막과같은 거점을 마련하고 각처의 패거리들과 연계하였다. 전에 도봉부근에있던 중길이네 살계의 낡은 사람들은 서쪽으로 나아가 혜음령에다 터전을잡았고 그들은 벽제(碧蹄)와 새원(新院)과 미륵산너머 분수원(分水院)사거리를 근거로 살았다. 문산포는 바로 강건너에 송도를 바라보며 이들의 손길이 가장 크게 닿는곳이기도하였다. 난전의 연줄은 문산포를거쳐서 송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터였다.

저녁이 되어 비는 후연개로 변하였고, 흥천수와 물치는 따뜻한 봉노에서 등을 지지며 단잠에 빠져 있었다. 앞의 점방으로 오지않고 마바로 안채로 통하는 사립문을 밀치면서 박거사가 들어섰다. 그뒤에는 전생이가 따르고 있었다. 둘 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등짐을 지고 있었다. 전생의 삼부는 젖어서 착 달라붙어 엉덩이 위로 물이 흘러내리고 팔뚝 위쪽 소매는 걷혀 올려져 있었다. 장쇠가 얼른 달려나가 전생이의 등짐을 내려주었다.

『이런 날씨에 하루 묵어오지않구 웬 고생들이람』

이경순은 마루로나와서 그들이 팔에다 짐을 부리는 것을 내다보았다.

『솔뚜리에서 곧장 오는길이냐?』

전생이는 언제나 그렇듯이 웃기만 하였고, 박거사가 답하였다.

『아뇨, 어제 양주 청석암에서 하루 묵었지요. 솔뚜리서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박거사는 동의를 구하듯 전생이를 돌아 보았고, 전생이는 느릿느릿 말하였다.

『황희 두령이 양주나오는 길이라 동행하여 오느라구 일찍 내려왔읍니다』

묘옥은 무명수건을 내다주었고 그들은 비에 젖은 머리와 얼굴을 대충 닦았다. 이경순이 말하였다.

『기왕에 일이 빨리 끝났으면 그냥 올것이지, 양주서 여기가 반나절 거린데 쓸데없이 묵어오느냐?』

『스님이 자꾸 잿밥먹구가라구 말리는바람에 그리되었읍니다』

이번에는 박거사가 답하였다. 묘옥은 전생이의 등짐을 받았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장국 말아줄께』

그들이 들어가앉고 흥천수와 물치도 뒤늦게 사랑으로 건너왔다. 묘옥이 저녁상을 들여왔는데, 솔뚜리서 보내온 산채며 버섯무침을 올려 놓았다. 전생이와 박거사만 국밥을 허겁지겁 떠넣었고, 다른 이들은 속이 더부룩하다며 산채를 안주로 술만 먹었다. 묘옥이 박거사에게 물었다.

『칠성암서 무슨 일이 있었수?』

묘옥은 박거사와 안성 통사 행중 시절부터 같은식구였던 터라 아저씨처럼 대하는투였다.

『무슨 일이라니…?』

『잿밥을 드셨다면서요, 뭐 묘한 일이 있었진…』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 498—1300
이애자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의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한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실분.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921-4466, (R)291-0117 Mr. 신

시외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 1-(705)-458-4326

Tavern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491-9058

급구: ◉도넛츠공장 맡아서 운영하실분
(판로가 있음)
◉도넛츠 숍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Weston 지역과 Finch 지역)
◉도넛츠 숍 메니저 구함.
전화 : 665-0790(낮) 731-1641(저녁) Mr.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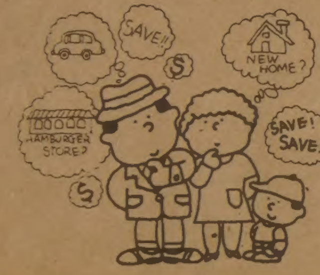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주실분
(Markham & Sheppard)
전화 : 284-3031 Mrs. 성

Kitchen Helper 구함.
5304 Yonge St.(영 남쪽, Finch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오후4시 이후), 826-7676(오후6시 이후)

한국요리사,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내방 요망합니다. 538 St.Clair Ave. W.
전화 : 654-6609 Mr. 유

Restaurant Kogil Kwan
한식요리사 1명, 일식요리사 1명, 중식요리사 1명, 10년이상 경력및 자격증 요함. 전화 : 532-7421 Mr. or Mrs. 장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매 매

가게 급매.
리스: 3년+옵션, 아스킹: $8,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Ralf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389-9755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산지 14개월)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주매상: 약 1만불의 도넛숍.
권리금: 33만불, 리스: 26년
◉월매상: 약 1만6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3만9천, Short Hour,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가능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636-169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당구장 매매함.
비데오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 531-9216 (오후5시-밤12시) GEORGE

아이스크림 캐비넷 파실분 연락 바랍니다.
8Ft 나 6Ft. 쓰던것.
전화: 920-0539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한국일보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여자 룸메이트 구함. 1 Bed Rm. 아파트
Finch & Bathurst
전화 : 630-7594(저녁 6시이후)

1Bed Rm. 방세 놓습니다.(부엌 포함)
월: $200,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Mr. 김) 오후1시~밤10시사이 전화 요.

가게 렌트 (1700 Sq.feet)-런던지역(Dochester)
Walk-in 쿨러가 있으며 버라이어티나 take out food으로 적당.
전화 : 624-5817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하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

〈식품 제조업체 탄생〉

ONTARIAN FERMENTATION

CO. TORONTO ONT.

교민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작년 가을 일차 광고로써 제 종합식품에 대해 인사말씀을 드렸으나 몇가지 기계결함이 생겨 제품생산을 해드리지 못함에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온타리안 발효공업에서는 정상가동을 하게되여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희 종합식품은 미생물에서부터 콩나물까지 대략 30여종을 생산할 예정이며, 또한 대기업체에서도 갖추기 어려운 약 10만달라에 해당하는 완벽한 연구시설 장비를 8년간 같이 일하며 13년 밀접한 9대를 갖고있는 토론토대학 Buchnea박사로부터 이미 은퇴하면서 기증받아, 더욱 자랑스런 마음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은 평생을 연구에만 종사했고 그동안 연구실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희들도 연구실에서 수많은 세월 헤일수 없는 시행착오와 좌절을 밑바탕으로 만족한 성공을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교민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우수하고 부담없는 제품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착오로써 이른바 풀어진다는 떡과 곰보진 두부를 사용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오며 이제는 우수한 제품이 여러 한국식품점에서 판매중이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며, 교민여러분께 직접 저의제품이 어떻게 다른가를 단한번 사용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발효공업에서는 특출한 진짜 육수제조기술에 대하여 특허수속을 밟고 있사오며, 일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품을 생산함을 교민께 알려 드리오니 많은 애용및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안 발효공업회사 대표 **최 재 경** 올림

※지방주문 환영합니다. (B)416-762~6153 (R)593~9458

1. 떡국용 흰떡: (A) 특징-쫄깃 쫄깃한 것.
(B) 노인과 위장이 편치 않으신 분을 위한 쉽게 무르고 부드러운 것. 똑같이 육수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2. 가래떡과 떡볶기: 아무리 얼리거나 굳어 있을지라도 얼음이 녹은 후 따끈한 물에 30분만 포장을 뜯지 말고 담가 두시면 즉시 말랑말랑한 뜨거운 떡으로 변합니다.
※ 매주 토요일 뜨거운 떡을 식품점에 배달합니다.

3. 두 부: (간수없는 두부) 인류사상 최초의 걸작품!!
A.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및 캐나다에서는 본사만이 순수한 간수를 사용하는 독특한 향취 또는 풍미와 맛이 특이하며 두부자체가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본 두부는 제조과정 자체가 이른바 회가루 두부와는 전연 다르며 이미 교민들께 우수한 평을 받고 있으며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평을 받고 있읍니다. 본 두부는 다목적용입니다.
B. 흔히 말하는 회가루 두부도 일부 원하시는 교민을 위해 생산합니다. 본 두부는 매끄럽고 매우 부드럽지만 두부 (A)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향취와 맛이 없읍니다.
C. 간수 없고 어떠한 약품도 쓰지 않은 두부 역시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특수살균·비닐포장된 두부로써 실내에서도 보관 가능합니다.

4. 순 대: (A) 피를 약간 사용한 한국토종순대로서 차게 식은 후라도 색갈이 곱고 자연스러운 맛과 구수한 향취가 특출하고,
(B) 피를 싫어하는 분을 위해 순 고기만을 사용했으며, 맛과 구수한 것은 같으며 색갈이 더 곱습니다.
(C) 채식가를 위한 순수한 식물성 순대, 역시 우수한 맛과 풍미가 있읍니다.
※ 순대는 매주 토요일 뜨거운 것을 배달하오니 식품점에서 구하실 수 있읍니다.

5. 식물성 쏘세지: 역시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6. 콩 나 물: 순수한 자연식으로 색갈과 맛이 전연 틀립니다. 색은 아주 옅은 우유색이고 맛이 특이하게 구수할뿐더러 저장기간이 더 깁니다.

7. 떡 쌀 가 루: 가장 곱다는 정평을 받고 있읍니다.

8. 찹쌀인절미: 매주 토요일 뜨거운 떡을 식품점에 배달하며, 본 떡의 특징은 얼거나 굳을 경우 포장을 뜯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담가 두시면 말랑말랑한 뜨거운 떡으로 변합니다.

9. 우 동: 원형과 타원형 두가지가 있으며 가마보꾸와 아부라기가 첨부되어 있읍니다.(근일 출하예정)

10. 짜 장 면: 역시 원형과 타원형이 있으며 푸짐한 짜장습이 첨부되어 있고 맛과 향취가 뛰어납니다.

11. 옥 수 수 차: 엽차식으로 포장되어 있고 단 한봉지에 4 liter 이상을 축출해 낼수 있고 찌꺼기는 엽차 봉지채 건져내면 됩니다.

12. Meat Activator: 불고기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아무리 쇠심줄도 30분만에 부드러워지며 말린 간장을 비롯하여 양념이 포함되어 있고, 주성분은 살아있는 심심한 효소입니다.

13. 장 류: ◆재래식 된장: 너무 맛이 좋아서 주부께서 화학조미료가 필요없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금년 늦여름 출하예정.
◆왜된장: 금년 말경 출하예정.
◆생짜장: 금년 늦여름 출하예정으로 맛이 대단히 특출합니다.
◆한국식 왜간장: 금년 봄 출하예정.
◆일본식(기고망) 간장: 명년봄 출하예정.

14. 중국식 찐만두: 너무 맛이 특이하여 중국인도 따를수 없다는 평이며 돼지냄새가 안나고 고기가 부드러운게 특징입니다.

15. 떡국용 또는 군만두용: 언채로 삶아도 터지지 않으며 돼지고기 냄새가 안나고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16. 가마보꾸(생선묵): A) 오색찬란한 여러가지 색이고 재래식이 아닌 순대나 쏘세지 형태로 설탕을 약간 줄였고 맛은 희한합니다.
B) 얄팍한 튀김 생선묵

17. 엿기름가루및 고추장용 메주가루 (금년 늦봄 출하예정)및 미생물 효소를 비롯하여 30여종.

18. 순 모밀냉면: 쫄깃쫄깃하고 순 육수가 첨가되어 있음.

19. 아 부 라 게: 당분간 본사제품인 우동용만 생산하고 시판용은 고려중에 있읍니다.

온타리오 발효공업 주식회사